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안

일 시 : 2004년 10월 19일(화), 14:00 ~ 16:30
장 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층 대회의실
주 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식

개회사 : 백 용 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14:10~14:50 주제발표

주 제 : 서울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방안

발 표 : 이 무 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14:50~15:00 휴식

15:00~16:00 토론

사회자

최 정 한 공간문화센터 대표

토론자

김 진 수 경인여자대학 교수

이 원 희 한국문화관광정책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 창 학 서울시 관광과장

이 훈 한양대학교 교수

조 경 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 계 석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부장

16:00~16:30 방청객 및 종합토론

목차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2

제2장 24시간 도시와 야간문화관광 5

- 제1절 야간문화의 확산과 24시간 도시의 도래 5
- 제2절 야간문화관광의 정의와 유형 8
- 제3절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정의와 유형 11
- 제4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비전 14

제3장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자원 및 프로그램 현황 16

- 제1절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16
- 제2절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39
- 제3절 관리주체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43

제4장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수요 및 욕구 49

- 제1절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수요 증대 49
- 제2절 내국인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및 욕구 50
- 제3절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및 욕구 51

제5장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방안 54

- 제1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54
- 제2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안 56
- 제3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종합 및 정책제언 86

서울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안

이 무 응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cult@sdi.re.kr)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야간(night)은 단순히 해질 녘에서 동틀 때까지라는 시간적 범위의 일정 부분만을 일컫는 개념은 아니다. 그 시간대 속에는 사람들의 삶의 숨결과 꿈과 욕망이 존재하고, 자본과 정보와 상품이 넘실거리며, 낮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적 자취들(이른바 nightscapes)이 있다. 그래서 야간은 점차 더 이상 통행과 영업이 금지되는 금기의 영역도, 은밀하게 왜곡된 유흥적 욕망의 경계만이 살아있는 지하의 영역도 아닌, 새로운 삶이 생성되고, 펼쳐지고, 공유되는 문화적 삶의 터전이 되고 있다.

야간 시간대가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된 이유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공간 틈새 시장을 겨냥한 심야산업의 등장,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 때문이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시공간 경계의 소멸이라는 전세계의 시공간 압축현상(time-space compression)이 나타났고, 벤처, 정보통신, 재택근무, 심야서비스업 등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24시간 직업군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시(時)테크, 야(夜)테크, 활시(活時)상품 등의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여가시간도 점차 유연화되면서 야간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즉 지배적인 시간시스템에 맞춰 살아가는 틀에 박힌 삶을 거부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등장과 건전한 밤문화를 창출, 향유하며 자아를 실현해가는 새로운 인간형, 이른바 올빼미족, 나아가 호모나이트쿠스(homo nocticus)의 출현을 의미하며, 주5일제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한 도깨비 관광 등 심야시간을 집중 활용하는 여가패턴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야간활동인구와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으나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간생활문화의 확대와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대내외적 수요 증대 등 시공간 문화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대비해,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현황과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걸맞은 야간문화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야간문화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 시민의 시간적 삶의 지평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닌 “잠들지 않는 서울, 24시간 열려 있는 서울”로서의 서울의 이미지 제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시의 문화·관광·마케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야간문화관광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시공간적 지평 확대를 통한 ‘삶의 다양성 창출’과 그를 통한 문화도시의 건설에 있다. 특히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의 경우, 개개인의 다양한 감수성과 욕망, 생체리듬, 삶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통해, 사람들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고 공존하는 24시간 열린 사회, 24시간 개방된 도시로 나아가갈 필요성이 있

다. 또한, 야간의 시공간은 삶을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 꿈과 희망이 있는 욕망의 장, 자원으로서 가치창출의 기회가 풍부히 열려있는 미래자본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는 야간문화론 내지 야간문화관광론을 정립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야간문화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시간적 생활지평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 연구방향 및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첫째, 서울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라이프스타일관광(lifestyle tourism)'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둘째, 외국관광객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서울의 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기존 문화관광자원 및 프로그램을 연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관광패턴의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장기적·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자료조사, 설문조사, 면담 및 현장조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헌연구는 문화관광과 야간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토대로 야간문화관광과 야간문화관광자원의 개념 및 유형, 분류체계를 도출함으로써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논리틀을 마련하였다.

자료조사는 문화관광 관련 학계와 연구소의 보고서 및 논문에서 제시된 자원과 프로그램, 서울시 발간 관광안내서와 문화국의 관련 내부자료, 서울시정보고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발간 자료, 여행업계 자료, 문화행사 안내 리플렛, 신문기사와 잡지 등 저널 자료, 관광정보 책자, 인터넷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외국인 관광객(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및 내국인 관광객 총 830명(유효표본 776부)을 대상으로, 서울의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04년 5월 31일에서 6월 13일까지 총 1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내국인은 서울역, 고속터미널, 김포공항 등에서, 외국인은 인천국제공항, 주요 관광지(인사동, 동대문 등)에서 무작위 설문을 실시했다. 아울러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1,300명 샘플조사를 통해 서울 야간문화관광 향유 실태 및 욕구의 일반적 사항을 보완 조사하였다.

면담 및 현장조사는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서울시, 서울시립미술관, 해외도시 관광청 등), 여행사 및 관련업체, 관련협회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현장조사는 테마별·유형별 야간문화관광 현장 샘플 조사와 주요 전략지역 조사(홍대지역 등)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거나 실시중인 야간문화관광 자원, 프로그램, 지역을 기본 대상으로 하였고, 향후 조성될 것이 확실시되는 야간문화관광자원(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 완료후 조성될 교량들)을 포함하여, 2004년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향후 개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일대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i) 야간문화, 야간문화관광, 야간문화관광자원 등의 개념, 유형, 특성에 대한 이론고찰, ii) 서울의 야간문화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현황, iii) 서울시민 및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욕구 및 수요조사, iv) 국내외 주요 도시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현황, v)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제안, vi) 정책제언 등으로 이루어졌다(그림 1-1).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24시간 도시와 야간문화관광

제1절 야간문화의 확산과 24시간 도시의 도래

야간(夜間, night)은 그 시간적 범위가 명확치 않다. 일반적으로 정의내리자면 ‘해질 녘에서 동틀 때까지’를 야간의 시간적 범위로 규정할 수 있다. 야간은 시간적 범위에 따라 밤(night)과 심야(mid-night)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더욱 의미있는 야간 논의는 개인의 생활주기 및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변적인 분류다.

야간을 생계 및 주활동의 시간적 범위인 주간과 분리시켜 고려해본다면, 더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다. 기존의 야간은 주간 활동을 위한 재생산적인 시간적 범위였다. 따라서 주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야간의 활동들은 제약을 받았고, 사회·제도적인 규제가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야간’에 대한 인식은 세계화 및 정보화, 시공간 틈새시장을 겨냥한 심야산업의 등장,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 등에 의해 점차 새로워지고 있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경계가 소멸되고 전세계의 시공간 압축현상이 나타나면서 시간대에 따른 활동의 제약은 매우 줄어들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24시간 직업군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간적 유연화는 생계 활동 및 직업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에서의 시간적 유연화도 유발했다. 즉, 야간에 여가활동을 영위하는 인구(호모 나이트쿠스¹⁾)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야간활동인구의 등장은 ‘다양화된 삶의 창출’이라는 입장에서 문화적 의미가 존재한다. 즉 개인의 다양한 감수성과 욕망, 생체리듬, 삶의 조건들이 반영된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공간적인 요구들이 ‘24시간 사회’ 및 ‘24시간 도시’에 대한 요구들을 만들어낸다. ‘24시간 사회’는 과거의 이분법적인 시간 구분 방식들을 부인하는 용어로서, 도시적 생활양식을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다.²⁾ 세계도시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 허브(hub, 중심축)로서의 도시 역할에 있어서 야간이 활성화되어 있는 24시간 사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24시간 도시’는 ‘24시간 사회의 특성을 지니는 도시적 공간’을 의미한다. ‘24시간 도시’는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동안 생활하고 일하고 모이는 장소로서, 투자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전망되는 공간이다. ‘24시간 도시’는 1960년대 말 이후 나타난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응한 도심 재생의 노력 속에서 등장했다. 전통적인 업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를 활동시간으로 하는 기준이 아니라 24시간을 기준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은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편익을 적극 이용하고자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업무와 쇼핑 시간 이후에도 도시 활동들을 제공하는

1) ηομ ο-νύητηχυσ, 밤에 활동하는 인구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립국어연구원이 2004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여 공식화되었다. 나이트쿠스는 밤을 뜻하는 나이트(νύηη)에 인간을 뜻하는 접미사 쿠스(χυσ)를 붙여 만든 신조어로 건전한 야간문화를 즐기는 사회집단을 일컫는다.

2) 한상진 역, 2001, 『24시간 사회』, 민음사, π.19

‘24시간 도시’는 개방적이고 건전하며 장기적인 새로운 도시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야간’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1980년대까지 밤시간은 대부분 음주, 향락, 소비문화의 장으로 인식되었고, 밤시간 활동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밤시간은 일상적 생활의 연장으로서 더 이상 소비적인 것이 아닌, 생산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사회의 밤시간 활용이 지금처럼 다양해진 것은 밤에 관한 법적 규제가 모두 해제된 1999년 3월 이후부터다. 1982년 심야통행금지 해제 이후 밤시간 활동은 더 이상 불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받았으며, 1990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밤시간은 과소비, 청소년 범죄방지라는 명목으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밤시간 활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났고 1994년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거한 관광특구 지정 등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밤시간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또한 1998년 심야영업규제시간의 철폐를 계기로 밤시간 활용은 더욱 활발해져 문화관광시설, 스포츠시설, 공공시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밤시간은 기존의 소비적 활동의 장에서 상품판매, 문화관광, 스포츠, 음식점시설, 관공서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야간문화를 설명하는 사회적 코드 중 하나는 ‘소비’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문화적 빅뱅에 의한 대중의 인식변화와 인터넷 문화와의 결합, 그리고 시공간 압축외에도 한국 사회가 노동과 소비 그리고 생산력을 배분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야간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문화적 코드는 1980년대말 24시간 편의점의 등장이었다. 이를 필두로 하여 24시간 영업하는 대형할인점, 새벽 5~6시에 폐점하는 대형 패션몰, 24시간 동전세탁소, 24시간 운영 보육원 등이 등장했으며, 심야영화관, 놀이공원의 야간개장, 고급화된 대형 헬스클럽의 심야영업, 마사지숍과 찜질방 사우나 등이 심야 레저산업으로 등장했다. 사무 A/S 대상도 24시간 컴퓨터 수리점, 24시간 사무편의점 등으로 심야영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음식점 또한 심야영업에서부터 야식, 불야성을 이루는 먹자골목 등이 새로운 밤의 소비문화를 이루고 있다. 문화분야에서도 심야영화관 및 자동차극장, 심야 콘서트장 등이 등장했다.

심야 소비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했기 때문이다. 즉,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인터넷의 발전으로 일과 휴식의 장소와 시간이 파괴되었으며, 세계시장이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서 글로벌 기업운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시간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창시상품(創時商品)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시간부족으로 인한 시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간을 유용히 쓰고자하는 소비자 욕구가 일반화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절시, 확시, 활시상품이 등장했으며, 이중 활시상품(活時商品)이 심야족을 겨냥한 것으로 과거 시간적 제약으로 접근이 어려웠던 활동들에 대해 참여기회를 확대한 상품이다. 24시간 할인매장, 가상쇼핑몰, 심야스포츠센터, 24시간 A/S센터 등이 그것이다.³⁾ 따라서 현대인들은 주어진 하루 24시간 동안 자

3) EXONOMIX PEç IEΩ, 2001, 『낮과 평등해진 밤을 공략하라』 2001.08.28일자, π.24

신의 시간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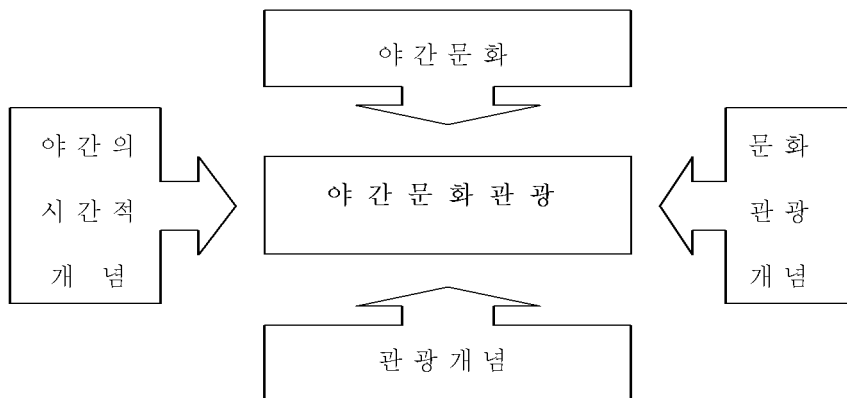
‘주5일 근무제’의 실시는 야간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커다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관광분야에서의 트렌드 변화가 예상되며, 체험형의 문화시장과 자기계발형 문화교육이 확산되고, 매니아주의 및 문화공동체가 확산될 것이다. 또한 가족형 문화활동과 스포츠, 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산업 전반의 긍정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음주 중심의 금요일 밤 문화조성 및 TV 시청의 장기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는 바, 부정적인 영향들까지도 흡수가 가능한 문화관광 분야의 대비책이 필요하다. 금요일 저녁시간부터 주말을 연계하는 다양한 문화관광 활동들이 필요하며, 도시공간에서도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될 유흥적인 여가문화에 대한 전략적 대안들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시공간적 변화들에 대응하는 인프라, 즉 야간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24시간 도시행정체제 등의 도시관리가 요구된다.⁴⁾

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주5일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p.40, 88

제2절 야간문화관광의 정의와 유형

1. 야간문화관광의 정의

야간문화관광은 아직 학계에서 공유하는 개념정의나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개념 구조상 「야간」에 문화관광을 한다」는 의미와 「야간문화」를 관광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그림 2-1 참조⁵⁾).



【그림 2-1】 야간문화관광 개념도

‘야간관광’의 개념을 규정한 충북개발연구원(2002)은 야간관광을, “야간에도 관광활동이나 행위를 통하여 관광소비의 만족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관광대상, 관광기업 등과의 상호작용과 현상을 일컬으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부관광객들이 야간에 볼 수 있는 각종 매력물, 관광편의시설, 조명경관이미지를 관광대상으로 하여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관광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야간관광객을 지역주민 및 야간에 활동하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관광대상을 ‘야간’ 시간대 자체가 지니는 총체적 매력, 자연 및 인공자원, 시설, 서비스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광기업은 야간관광객들의 관광경험을 충족시켜주며 상품이나 서비스 및 야경경관조망 편의를 제공하는 관련업체들을 지칭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야간관광의 활동과 행위를 수용하고 야간관광의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적, 대상적,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로 야간관광지 혹은 야간관광명소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활동 중 관광대상을 광의의 문화로 범주화할 경우, 야간에 이루어지는 방문지역의 일상문화까지도 야간관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야간문화관광(night culture tourism)이라는 용어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즉 야간문화관광은 “야간(night)’이라는 시간적 범위와 ‘문화(culture)’라는 대상적 범위를 지니는 관광(tourism)활

5) 충북개발연구원, 2002, 「충북지역 야간관광명소 개발전략」, p.5 참조

동”을 지칭하게 된다. ‘문화관광’은 지역 고유의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대중활동으로서 관광은 관광객의 개별적 활동 및 관광계획이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관광객들은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지만 자기 방식대로 움직인다. 또한 관광객들은 24시간 내내 활동하여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으며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 관광객들은 방문 지역의 시간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이 제공되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 구분한다. 즉 관광객들은 지역의 시간과 상관없이 이동하고 활동한다.⁶⁾

결국 ‘야간문화관광’은 지역주민과 외부방문객들에 의하여 야간에 존재하는 해당지역의 문화적 매력물들과 서비스 편의시설 및 인프라, 야경이미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창출되는 관광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야간문화관광의 유형

야간문화관광을 유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혹은 도시공간의 다양한 구성요인들을 바탕으로 야간경관을 이루는 구성요소 및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공간적 맥락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일상과 관광객 사이에서 일어나는 표면적·내면적 교류들도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야간관광의 유형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관광형태로서 관광목적과 활동형태에 따라, [표 2-1]에서 보듯이, 시설의존형, 경관관람형, 체험활동형, 프로그램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2-1] 관광목적과 활동형태에 따른 야간관광 유형 분류

분류	관광내용
시설의존형	전망타워, 야간공개극장, 나이트클럽 등
경관관람형	야경경관감상, 야간열차, 야간유람선, 야간드라이브 등
체험활동형	밤낚시, 야간스키, 야식체험, 캠프 화이어 등
프로그램형	야간라이브공연, 불꽃놀이, 야간시티투어 등

자료: 충북개발연구원(2002), p.12

야간관광활동이 이루어지는 야간관광명소의 유형도 [표 2-2]에서 보듯이, 관광행태, 입지, 자원,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기도 한다.

6) 한상진 역, 2001, 『24시간사회』, 민음사, p.84

[표 2-2] 야간관광명소의 유형분류

분류기준	유 형 분 류
관광행태	문화관광 ¹⁾ , 레포츠관광, 쇼핑관광, 이벤트관광
입지여건	수변형, 해안형, 산악형, 도시형, 농촌형
자원성격	역사형, 자연자원형, 문화형, 위락형, 산업형
시설기능	전망(조망)데스크형, 가로경관형, 자원경관형, 위락형, 프로그램형

자료: 충북개발연구원(2002), p.12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야간관광의 유형에 대한 보편화된 분류기준은 부재한 상태다. 더욱이 야간관광을 보다 문화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유형화하는 작업은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의 유형은 방문객의 특성과 문화관광자원 및 상품개발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유형화가 요구된다.

제3절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정의와 유형

야간문화관광자원이란 야간문화관광의 대상이 되는 관광매력물과 인프라를 말한다. 이 때의 관광대상은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로 구분되기도 있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각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동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야간'의 시간적 범위에 향유가 능한 '문화관광자원'으로 정의하고, [표 2-3]과 같이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유형별', '지역별', '관리주체별', '타깃별'로 각각 나누었다⁷⁾.

7) 엄밀히 따지면 지역별, 관리주체별, 타깃별 자원은 앞의 유형별 자원을 각각의 변수(즉, 지역, 주체, 타깃)에 따라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4가지 분류체계 하에서는 자원분류가 중복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이 핵심적인 분류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경우는 각각의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4가지 분류 중 적절한 것을 핵심적인 분류항목으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야간문화관광자원의 분류

구분	자원	
유형별	형태별	경관, 문화행사(축제·이벤트), 명소 및 거리, 건축물(문화시설물), 문화유적, 인프라(숙박, 교통, 홍보)
	주제별	자연생태, 역사전통, 문화예술, 생활문화, 산업경제
지역별	점	문화시설물, 문화재, 주요건축물
	선	거리, 교량
	면	야경특구, 관광특구, 관광명소
관리주체별	공공	서울시, 자치구
	민간	민간기업 및 단체
타깃별	시민	여가중심 자원(문화형)
	관광객	관광중심 자원(관광형)

여기서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은 ‘형태’와 ‘주제’에 따라 [표 2-4]에서처럼 30개의 유형별 분류코드로 유형화하였다.

[표 2-4]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분류코드

주제 \ 형태		I	II	III	IV	V	VI
		경관	문화행사 (축제·이벤트)	명소/거리 (시장 등)	건축물 (문화시설물)	유적/사적 /문화재/명승지	인프라 (숙박/교통)
A	자연생태	I - A	II - A	III - A	IV - A	V - A	VI - A
B	역사전통	I - B	II - B	III - B	IV - B	V - B	VI - B
C	문화예술	I - C	II - C	III - C	IV - C	V - C	VI - C
D	생활문화	I - D	II - D	III - D	IV - D	V - D	VI - D
E	산업경제	I - E	II - E	III - E	IV - E	V - E	VI - E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서울시의 현황을 참조해 보다 세분화해보면 각각 [표 2-5], [표 2-6]과 같다.

[표 2-5] 형태에 의한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형태별	경관	-서울시 야간경관개선사업 대상물 -서울시 서울시민사랑상 야간경관부문 대상물 -야경조망지점
	문화행사 (축제·이벤트)	-축제 및 이벤트(시/ 25개구/ 민간 주관 행사)
	명소/거리 (시장 등)	-관광특구(서울시 4개 관광특구) -관광명소(쇼핑, 유흥 등 지역특성별)
	건축물 (문화시설물)	문화시설물(지역별/ 유형별)
	문화유적	구별 유적/사적/문화재/명승지 현황
	관광인프라	교통 / 숙박 / 홍보 / 행정인프라

[표 2-6] 주제에 의한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제별	자연생태	식물원/산림 자원/하천 자원/공원/천문/탐조/동물원/생태공원/풍수 지리/계절별 매력장소	
	역사전통	전통놀이/전통생활용품/전통음식/전통의복/전통건축/전통음악/전통무용/전통마을/전통문화/지명/세시풍속/역사적 인물/역사적 배경/학당/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문화예술	공연	클래식/국악/뮤지컬/콘서트/넌버벌퍼포먼스/전통 무용/현대 무용/대중무용/연극
		영화	대중영화 및 예술영화
		전시	미술/사진/조각/조형/미디어아트/만화/애니메이션
		도서·문자	도서 및 문자
		벽화	벽화/그래피티/낙서
	생활문화	먹거리/살거리/놀거리/즐길거리/쉼거리/잘거리	
	산업경제	놀이시설	레마파크/복합문화공간
		상업시설	아름다운건물/대형서점/대형음반매장
		전시시설	전시장
		공연시설	멀티플렉스 영화관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분류 외에도 [표 2-7]에서 보듯이, 점·선·면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역별로 야간문화관광자원을 구분할 수 있다.

[표 2-7]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소분류

구분	자원	
점	문화시설물, 문화재, 주요 건축물 등	
선	교량, 거리 등	
면	야경특구	한강, 청계천, 월드컵공원, 남산, 여의도, 잠실, 예술의 전당, 인사동, 봉은사, 세종로, 서울시청 등
	관광특구	명동·북창동·남대문,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등
	관광명소	정동, 세종로, 인사동, 종로, 남산, 대학로, 신촌·홍대지역, 압구정·청담, 강남, 삼성, 잠실, 이태원 등

점적인 형태의 야간문화관광자원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인접한 또다른 점적인 형태나 선적인 형태의 자원과 결합하여 야경특구, 관광특구, 관광명소와 같은 면적인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공간 내의 제반 구성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야간문화관광자원의 분포에 따른 효율적인 권역구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조성 등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으며, 야간관광 인프라의 확충 및 해당 지역의 장소성을 반영하는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더욱 더 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비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도시발전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프로그램 개발의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보면, 야간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 및 관광객의 수요를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인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 서울의 이미지 향상을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서울의 장기비전인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서울을 만들 수 있다([그림2-2]).



[그림 2-2] 서울 야간문화관광의 비전

프로세스의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우선, 자원발굴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은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야간'이라는 시간적 범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여가활용이나 관광객들의 체류관광을 위해 문화시설, 숙박시설, 유흥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자원을 확충 정비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문화자원을 폭넓게 발굴해야 한다.

둘째로,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조사해야 한다. 관광객의 '야간' 시간대에 대한 수요는 방문 지역의 '일상'을 포함하는 지역적 특성과 결합하여 다양한 '야간문화관광' 수요를 창출한다. 더욱이 '야간' 시간대는 주간과 달리, 여유로움을 그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나 타인과의 교류에 대한 열망 등을 분출할 수 있는 더욱 광범위한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잠재력이 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경로는 오감(五感)의 충분한 자극이다. 따라서 야간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오감의 욕망들을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볼거리', '먹거리', '설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알거리' 등의 야간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들 모두 야간시간대의 이동이나 활동에 위험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야간관광 환경의 안전성,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 숙박, 홍보 인프라 조성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프로그램 개발의 목적에 있어서도, 우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야간의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공간의 어메니티(amenity) 창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야간에 운영하지 않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의 문화향수 및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로, 문화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을 위해서, 도시 방문자인 관광객을 위한 야간 관광환경의 개선과 관광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로, 도시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정체성을 위해서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야간관광을 즐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주로 재래시장, 카지노, 단란주점, 한국음식체험, 서울야경 등에 한정된 관광을 하고 있다. 세계도시(world city), 문화도시(culture city), 24시간 열린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제3장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자원 및 프로그램 현황

제1절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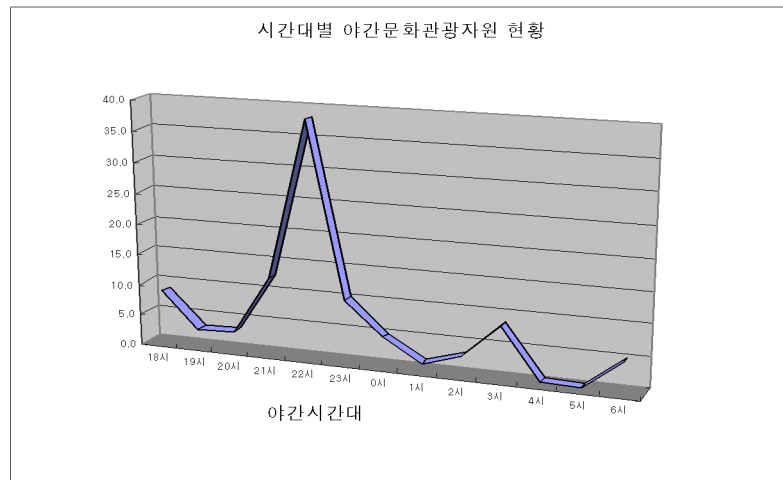
서울의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은 제2장의 [표 2-4], [표2-5], [표2-6]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태별 자원과 주제별 자원으로 대분류된다. 형태별 자원은 다시 경관, 문화행사, 명소거리, 건축물, 문화유적, 인프라 등으로 중분류되고, 주제별 자원은 다시 자연생태, 역사전통, 문화예술, 생활문화, 산업경제 등으로 중분류된다.

먼저, 서울시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표 3-1][그림 3-1] 참조), 조사대상 875개 자원 중에서 22시까지 운영하는 자원이 3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1시에서 23시 사이에 영업 및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가 6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야간(자정 이전)과 심야(자정 이후)로 구분해보면, 전체 자원의 81.2%가 자정까지 운영되고 있고, 심야시간대까지 운영하는 자원은 18.8%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종료시간대 분포

시간대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계
전체 (개수)	78	26	28	110	335	90	43	11	29	75	5	2	43	875
전체 (%)	8.9	3.0	3.2	12.6	38.3	10.3	4.9	1.3	3.3	8.6	0.6	0.2	4.9	100.0
누적 (%)	8.9	11.9	15.1	27.7	66.0	76.3	81.2	82.5	85.8	94.4	95.0	95.2	100	

* 조사대상: 시간대파악 가능한 자원(경관, 명소거리, 문화시설, 인프라, 산업경제, 자연생태, 역사전통, 문화예술, 산업경제, 생활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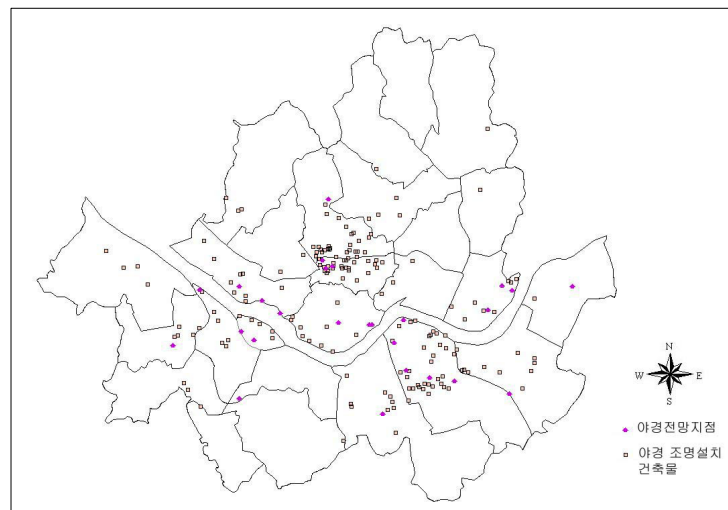


[그림 3-1] 야간문화관광자원 종료시간대 분포

1. 형태별 야간문화관광 자원

1) 경관(야경)

서울의 야경자원은 크게 '야경조명 건축물' 과 '야경조망 명소'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2004년 현재 총 196개의 야경자원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3-2]). 이 중 야경조명건축물이 168개, 야경조망명소가 28개([그림 3-3])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 서울시의 야경조명 건축물 및 야경조망 명소 분포도

(1) 야경조명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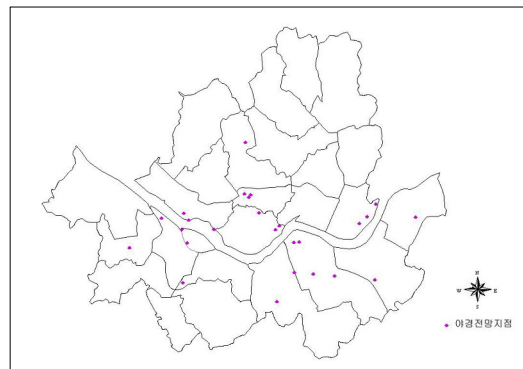
서울시는 정체성(identity), 도시미관(beauty), 안정성(safety)이라는 '서울시 도시야경의 3

대 목표'를 설정하고, 1996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서울사랑시민상(야간경관조명부문)'을 실시, 매년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다. 2004년 현재 공공건축물 75개소(문화재 26개소, 교량 13개소, 공공시설물 36개소), 민간건축물 93개소, 총 168개소에 야간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의 야경은 위에서 언급한 건축물들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 도시 속의 산이나 고층건물, 전망타워 등의 조망점에서 보는 도시의 전경, 멀리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건물 너머 혹은 도로나 강을 통해서 보이는 고층건물이나 타워의 모습, 교차점 등에서 볼 수 있는 근접지역 전체의 경관, 주요 간선도로에서 보는 도로 말단의 조망대상과 가로경관, 주행 중의 차나 열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관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도시의 야간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다양한 야간경관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설치하거나 재배치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야경조망 명소

서울 전역 혹은 일부 지역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야경조망 명소는 총 28개소로서, 그 분포와 내용은 [그림 3-3], [표 3-2]와 같다. 이러한 야경조망 명소들의 분포 지점, 즉 야경 조망지점들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서울의 야경조망 명소 분포도

【표 3-2】 서울의 야경조망 명소

항 목		시작시점	종료시점	조망컨텐츠
한강유람선		10:00	21:00	한강조망/ 라이브공연
서울시리투어버스		9:00	19:00	고궁코스/ 도심순환코스
서울타워 케이블카		10:00	23:00	도심조망/ 서울타워 연계
야경 조망 포인트	서울타워	09:00	01:00	높이 240미터의 전망대 회전식 레스토랑
	롯데관악타워헬기착륙장	-	-	서울 서남권 지역 조망
	causeway	-	-	한강 및 서북권 지역 조망
	라퓨타	12:00	0:30	레헤란로 조망
	노말	-	-	예술의 전당 및 강남권 조망
	오엔리버스테이션	12:00	0:00	한강 및 한강시민공원 조망
	스타라이트	14:00	2:00	한강 및 동남권 지역조망
	테라스	9:00	2:00	남산, 한강 및 도심지역 조망
	바그다드카페	11:00	2:00	한강 및 서북권 지역조망
	into	10:30	3:00	압구정, 신사지역 조망
	선유도	9:00	0:00	한강조망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7:00	6:00	한강조망
	카페 피르츠	11:00	2:00	한강 및 서북권 지역조망
	토파즈	11:30	22:00	시청 및 도심지역 조망
	스카이뷰41	11:00	2:00	한강 및 서북권 지역 조망
	웬브론	18:00	22:00	시청 및 도심지역 조망
	아란치오	18:00	23:00	레헤란로 조망
	옴빠야눈아야강변살자	15:00	2:00	한강 및 서북권 지역조망
	하야트 아이스링크장	12:00	22:00	남산, 한강 및 도심지역 조망
	63빌딩 스카й뷰	11:30	22:00	한강 및 서북권 지역 조망
	도림	18:00	22:00	시청 및 도심지역 조망
	북악팔각정	10:00	20:00	한강 및 서울시 전역 야경조망
	피자힐	12:00	0:00	한강 및 동남권 지역조망
	테크노마트 9층전망대	10:00	23:00	한강 및 동남권 지역조망
	스카이프리스	10:00	1:00	레헤란로 조망

2) 문화행사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행사는 총 232개로, 서울시 대표축제가 24개, 자치구 축제가 208개이다. 이 중 야간에 비중을 두고 진행되거나 야간축제로 개발 가능한 축제는 총 18개(전체의 7.8%)로, 서울시 8개(서울시 축제의 33%), 자치구 10개(자치구 축제의 4.8%)로서,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1) 서울시 문화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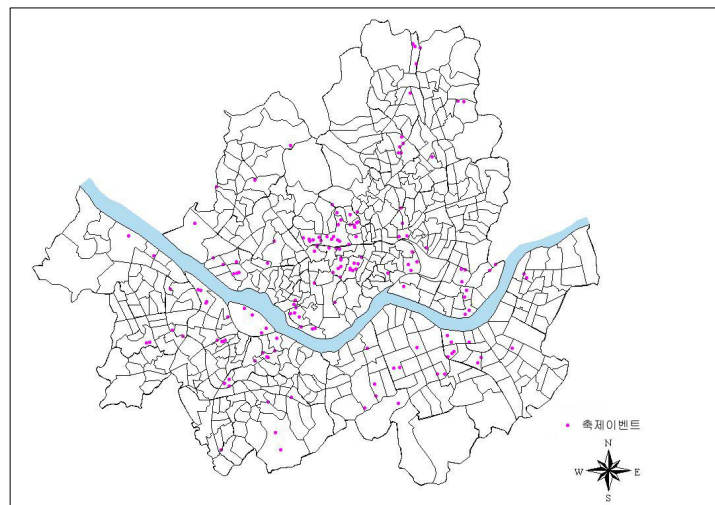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대표축제는 총 24개이다. 이들 축제는 대부분 야간보다는 주간 중심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서울시의 5대 주요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

서울페스티벌(H Seoul Festival), 서울세계불꽃축제(Seoul International Fireworks Festival), 서울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 Festival), 서울드럼페스티벌(Seoul Drum Festival), 미디어시티서울(Media City Seoul)과 설날, 정월대보름민속놀이, 연등축제 등 총 8개 행사는 야간축제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고, 실제 야간시간대에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축제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축제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축제를 개발하고, 주간중심 축제와 야간중심 축제를 적절히 배치, 연계하여 시간적으로 다양한 축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축제

서울시의 각 자치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는 총 208개가 있고, 이 중 총 59개의 대표적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그림 3-4]).



[그림 3-4]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축제 및 이벤트 분포

대부분의 행사들이 야간에까지 이어지도록 운영되고 있으나, 야간에 비중을 두고 진행되는 행사는 한여름밤 강변축제, 클럽문화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 한국실험예술제, 명동축제, 신촌문화축제, 초여름음악회, 인왕산해맞이축제, 대학로청소년축제, 압구정문화축제 등 10개 행사를 제외하곤 현재로서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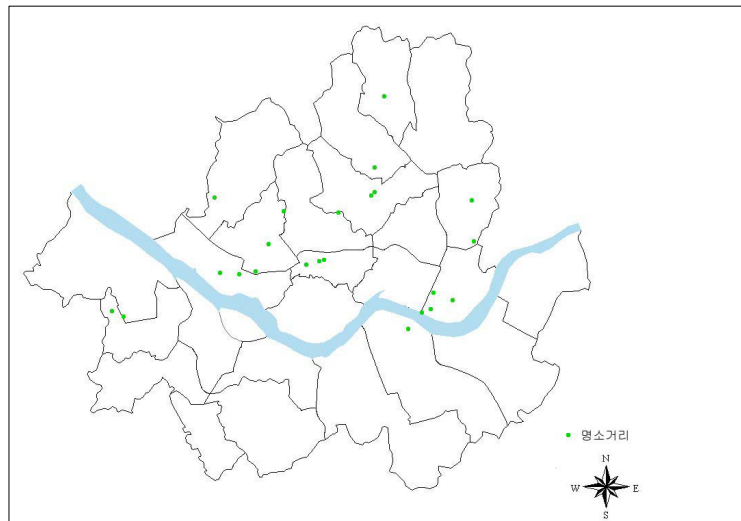
따라서 자치구의 지역행사들 중에서 야간문화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야간축제를 개발하여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3) 명소/거리

서울의 관광명소 및 거리는 해당 지역의 차별화된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공간으로서, 관광특구

에서 재래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2004년 현재 서울시에는 107개의 명소거리가 존재하고 있고, 이중 재래시장이 13개, 테마여행 명소 12개, 자치구별 명소가 82개다. 일례로, 시로 읽는 서울의 거리, 지도로 보는 맛집, 도심테마여행 등의 주제를 통해, 동대문, 대학로, 압구정동, 신촌, 이대앞, 경희대, 명동, 북창동, 신사역주변, 건대앞, 홍대앞, 성신여대앞 등 12곳이 테마여행명소로 구분되고 있다. 재래시장 포함 총 25개의 관광명소 및 거리 분포는 [그림 3-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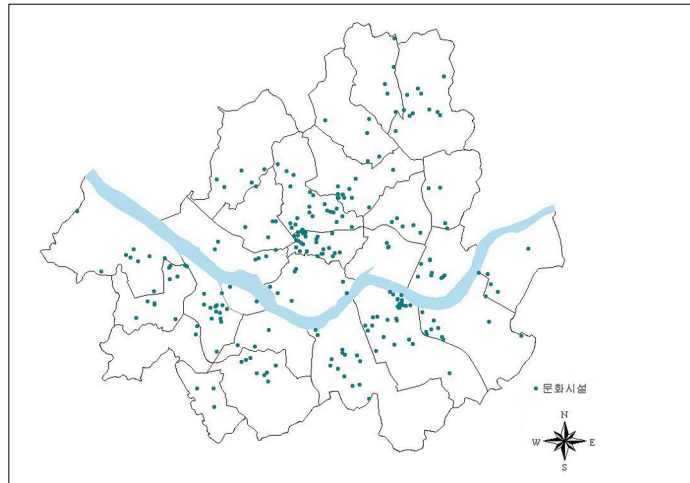
[그림 3-5] 서울의 명소/거리 분포도

자치구별 명소 82개는 권역별로 도심권 6곳, 동북권 23곳, 서북권 31곳, 동남권 22곳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명소들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야간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한다면 야간문화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주요 명소 중 야간문화관광의 명소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는 홍대지역, 대학로, 인사동, 북촌, 동대문, 남대문, 명동, 이태원, 월드컵공원, 천호동, 삼성동, 압구정동, 예술의 전당일대 등을 들 수 있다.

4) 문화시설물

2004년 현재 서울에 분포하고 있는 문화시설물은 공연시설 109개(공연장 60, 영화관 43, 자동차극장 6), 전시시설 36개(박물관 15, 미술관 21), 지역문화복지시설 54개(문화의집 25, 구민회관 20, 문화체육센터 9), 문화보급전수시설 21개(국악원 1, 문화원 20)를 포함 총 220개가 존재한다([그림 3-6]). 이 중 일부 전시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야간 시간대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야간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드물다.



[그림 3-6] 서울시의 주요 문화시설물 분포도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물 중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한 대응과 이용혜택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물 이용시간을 연장한 시설들이 있다.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이 그러한 대표적인 문화시설물로서, 이들 시설들은 야간개방을 함으로써, 도시 직장인들의 퇴근시간 후 문화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시립미술관에서 즐기는 팝스 콘서트” 행사를 기획하는 등 문화시설물 야간개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도 매주 수요일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시설물의 야간개방은 개방된 관광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5) 문화유적

서울시는 정도 600년이 넘는 역사적인 수도로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청계천 발굴을 통한 청계천 호안 석축 및 오간수문 등 청계천 교량들,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역사인물들의 고택, 전통적인 도심 속 아름다운 고궁과 정원들(성락원, 이태준가, 심우장 등), 서울 성곽 등이 대표적이다.

위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투어코스화 한 것이 ‘서울 역사문화유산 탐방로’다. 이는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7가지 주제, 즉 한성백제의 도읍지 하남 위례성·송파·강동, 서울의 명당 경복궁, 한성의 우백호 인왕산, 한성부의 중심부, 역사도시 서울의 자존심 북촌, 동방예의 지국의 현장 동촌 기행, 한성의 좌청룡 낙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에서 특히 종로구는 가장 많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자치구로서,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역사문화관광지로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특별구 지정까지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백사 이항복의 별장터 복원 여가공간화, 가회동 전통한옥의 양반문화체험관 운영, 갑옷차림의 도성군 재연행사 흥인지문 적용, 타고(打鼓)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 중이어서,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유리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의 문화유산들은 야간조명 설치 등이 일부 이루어지곤 있지만, 아직까진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야경투어 프로그램 및 야간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관광인프라

서울의 관광인프라는 크게 숙박인프라, 교통인프라, 홍보인프라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4년 현재 홍보인프라 18개, 교통인프라 3개, 숙박인프라 289개 등 총 310개의 인프라가 존재한다.

(1) 정보·홍보인프라

서울의 정보·홍보 인프라에는 관광안내소 13개([표 3-3]), 북스토어 1개, 정보사이트(서울문화관광사이트, 지하철여행정보사이트, 지리정보시스템포털) 3개, 관광안내책자 1개 등 총 18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표 3-3] 서울시 관광안내소 현황

	안내소	전화번호	위 치	운영시간
1	시청 안내소	735-8688	중구 태평로 1가 31 시청본관 내	09:00 - 22:00
2	동대문종합관광안내소	2236-9135	동대문운동장 축구장내 상가지역 을지로 7가 1번지	09:00 - 22:00
3	서울월드컵홍보관광안내소	736-0212	중구 태평로 1가 68-1	09:00 - 18:00
4	이태원역사종합관광안내소	3785-0942	용산구 이태원동 127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	09:00 - 18:00
5	이태원 간이관광안내소	794-2490	용산구 이태원동 31-114 이태원시장 입구	09:00 - 18:00
6	남대문시장관광안내소	752-1913	중구 남창동 49 남대문시장내	09:00 - 18:00
7	덕수궁관광안내소	756-0045	덕수궁 정문앞 보도상	09:00 - 18:00
8	명동관광안내소	757-0088	남대문로2가 130번지 미도파백화점앞 보도상	09:00 - 18:00
9	김포공항관광안내소	3707-9465	강서구 공항동 157 국내선 1층로비 2번 게이트 옆	09:00 - 18:00
10	삼성도심공항터미널 관광안내소	551-0778	강남구 삼성동 159-6 도심공항 2층 입국장 1번 게이트 옆	09:00 - 18:00
11	동대문간이관광안내소	2279-7381	중구 을지로6가 18-12 두산타워앞	09:00 - 18:00
12	잠실종합관광안내소	423-3026	잠실롯데월드백화점 지하광장	09:00 - 18:00
13	신촌관광안내소	363-2883	서대문구 대현동 60-11 신촌역 4번 출구	09:00 - 18:00

‘하이서울북스토어’는 서울시 직영 간행물 판매점으로 서울시 안내책자뿐만 아니라 간행물과 서울시 기념품, 한국전통민속공예품 등을 판매한다. 서울 지리정보시스템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생활지리정보, 문화, 관광, 도로시설물 등의 각종 서울시 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관광안내책자인 ‘신나고 실속있는 서울여행 길라잡이’에서는 홍대 앞의 클럽문화,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 이름난 시장골목, 쇼핑골목, 먹자골목 및 대학가 주변 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 노선도에 따른 역세권 내의 대중문화자원을 정보화한 지하철 여행정보지(www.seoullook.com)는 종각·시청, 신촌·이대·홍대, 경복궁·안국역 지역, 혜화·동대문·명동 지역 등의 역세권 문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료관광통역 서비스 전화 1330’도 ‘긴급구조요청 전화 119’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다양하며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간문화관광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존재하지 않고, 관광안내소 역시 대부분 야간시간대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야간문화관광을 위한 홍보인프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교통인프라

서울시 관광을 위한 교통인프라로는 크게 시티투어버스, 지하철, 고속철도(KTX)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고궁코스’와 ‘도심순환코스’ 두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이용객에게는 서울시 내 관광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등이 제공된다. 그러나 야간시티투어버스는 월드컵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운행한 바 있으나, 현재 야간노선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야간노선개발이 필요하다.

지하철의 경우는, 지하철역의 문화공간화를 통해 지하철 역사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하철 음악회’, ‘무료 가훈 써주기’(6호선 삼각지, 호창공원앞역), ‘전통차 마시기 무료 이벤트’(안암·고려대·상월곡·돌곶이역) 등이 있으며, 상설문화공간으로는 충무로역의 ‘오재미동’이 있다. 최근 지하철 운행시간을 1시까지 연장하고 있으나, 금요일과 토요일 등 주말에는 보다 운행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2004년에 새롭게 등장한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경우는, 서울과 지방 도시들간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어 서울의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현재 서울시는 고속철과 연계한 서울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 중이다. 하루동안 서울을 돌아볼 수 있는 서울시 고속철 연계 패키지 상품으로서 서울하루여행(Seoul Day Tour), 서울문화투어(Seoul Culture Tour) 등이 있으며, 패키지 상품에 서울시 시설 이용료 할인 및 시 산하기관운영 시민안전체험관, 정수장·하수처리장 등 체험관광 코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호도관광상품, 근대문화유적 현장답사, 대규모 시설 체험관광상품 및 문화향수상품을 개발하고, 용산역에 서울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을 추가하는 등의 지원체계도 보완할 계획에 있다. 앞으로 고속철 이용이 편리하도록 서틀형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도심순환코스를 조정하며 이용요금도 할인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서울역과 용산역사의 관광안내소에 관광통역안내요원을 증원하고 근무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으로 4개의 유형, 즉 G R Y, B 라인의 버스노선이 개설되어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노선의 운영 시간을 특정시간대(금요일 저녁 등)을 연장하거나 또는 야간 문화관광을 위한 특정 버스노선, 예를 들어 N라인(Night 라인)이나 L라인(Light-up) 등의 노선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3) 숙박인프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숙박 인프라는 관광호텔 119개소(20,752실, 3만 4천명의 관광객 숙박 가능), 월드인 147개소(4,952실), 게스트하우스 14개소(112실), 캠핑장 1개소(170면), 템플스테이 6사찰(66실), 유스호스텔 2개소(294실) 등 총 289개다.

이러한 숙박시설 중 외국인들의 이용이 빈번하거나 관광안내책자 등에 소개되는 숙박업소들을 중심으로 야간문화관광권역을 도보권 및 차량이동권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해볼 필요가 있다.

5)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시간대별 분포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요약해보면 [표 3-4]에서 볼 수 있듯이, 약 880여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표 3-4】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 현황 및 프로그램 개발방향

구분		현황	프로그램 개발방향
경관	야경 건축물	168개소 (문화재 26개, 교량 13개, 공공시설물 36개, 민간시설물 93개)	야경투어코스
	야경조망명소	28개소	
문화행사		18개 (서울시 8개, 자치구 10개)	서울대표 야간축제
명소/거리		107개 (재래시장 13개, 자치구별 명소 82개, 테마여행명소 12개)	야간 재래시장
			자치구별 야간관광 랜드마크
문화시설물		220개소 (공연시설 109, 전시시설 36, 공공시설 야간개방 3개소 포함)	문화시설 야간개방
문화유적		11개소 (도심정원 4개, 역사문화탐방로 7개)	유적 야간탐방
인프라	숙박인프라 310개소		숙박시설 중심 시간대별 야간투어코스
	교통인프라 3가지 (시티투어버스, 지하철, 고속철도, 버스)		고속철 연계 셔틀형 시티투어버스 개발
	홍보인프라 18개 (관광안내소 13개, 북스토어 1개, 정보사이트 3개, 가이드북 1개)		야간 안내기능 강화 테마형 가이드북 제작
계		883 개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 중 시간대 파악이 가능한 조사대상 327개 자원의 시간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8시 이전에 22.3%를 운영을 종료하며, 절반 이상이 21시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야간과 심야로 나누어 보면, 자정까지 전체 자원의 72.7%를 운영을 종료하고 있어, 심야에 운영하는 자원은 27.3%를 차지하고 있다(【표 3-5】).

【표 3-5】 형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종료시간대 분포

대분류	중분류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합계
형태별	경관	1	1	1	2	5	3	2	3	6	72	0	0	2	98
	명소거리	3	2	1	0	8	0	0	0	0	0	0	0	1	15
	문화시설	58	14	19	54	41	8	2	2	3	0	0	0	0	201
	인프라	11	0	0	0	2	0	0	0	0	0	0	0	0	13
전체		73	17	21	56	56	11	4	5	9	72	0	0	3	327
전체(%)		22.3	5.2	6.4	17.1	17.1	3.4	1.2	1.5	2.8	22.0	0.0	0.0	0.9	100.0
누적(%)		22.3	27.5	33.9	51.0	68.1	71.5	72.7	74.2	77.0	99.0	99.0	99.0	99.9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관의 경우는 새벽 3시까지 운영하는 자원이 72개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어, 야경 조성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소/거리의 경우는 조사 대상의 93%가 22시 이전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고, 문화시설의 경우도 93%가 22시 이전에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야간연장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대공원을 제외한 약 30%의 문화

시설이 18시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인프라의 경우도 조사대상의 약 85%가 18시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특히 관광안내소의 경우 [표 3-3]에서 보듯, 22시까지 운영하는 시청과 동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광안내소가 18시에 문을 닫고 있어, 홍보관련 인프라의 연장운영이 필요함을 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형태별 자원을 활용한 향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은 크게 야경투어 코스 개발, 야간 축제 개발, 야시장 개발, 지역별 야간관광 랜드마크 조성, 문화시설 야간 연장 개방, 유적 야간탐방 프로그램 개발, 숙박시설 중심 도보투어코스 개발, 교통수단 연계 시티투어 교통수단 개발, 야간 관광안내소 운영, 테마별 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

1) 자연생태자원

서울의 자연생태 자원은 동·식물원 6개, 생태산림자원 174개, 천문자원 10개 등 총 190개가 존재하고 있다.

(1) 동·식물 자원

서울시가 보유한 동·식물원에서는 동·식물자원의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해볼 수도 있다. 특히 과천 서울대공원은 2005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토종동물원을 조성 중에 있다. 토종동물원에서는 야생동물의 생태환경과 가깝도록 인위적 구조물을 없앤 방사장 12곳을 설치하여 한국호랑이와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13종 84마리를 방사할 예정이다. 동식물원에서 운영하는 생태체험프로그램들은 야행성 동물의 생태적 습성 및 식물원 시설을 이용한 곤충생태계 등의 탐험 프로그램 등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2) 생태공원 및 산림자원

서울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 및 자연지리적 조건을 활용한 산림이 많다. 서울에는 한강 시민공원과 선유도공원을 포함한 총 100개의 공원이 존재하며, 이러한 공원들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유래 및 조성배경에 따라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월드컵공원을 비롯한 총 5곳이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보전가치가 높은 한강 밤섬 등 총 6개의 생태계보전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의 자연생태자원으로 '산림'이 있다. 서울은 분지(盆地)의 형상으로 다양한 산림자원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관악산, 청계산 등 서울의 산림 9곳에서는 '숲속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동·식물 산림자원을 숙지하고 있는 안내자 및 인솔자(숲 해설가)의 도움으로 숲속 탐방코스를 등산하면서 산림생태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운영된다. 또한 서울에는 계절별로 유명한 총 54곳의 봄꽃길이 조성되어 야간의 여가문화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3) 천문자원

천문자원은 해, 달, 별 등의 천연자원으로 이를 중심주제로 하는 세시풍속이나 관찰, 탐사 등이 모두 천문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이 된다. 예를 들어, 남산골한옥마을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등에서 운영되는 총 9개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와 창동 청소년문화의집 부설 구립 천문대에서 운영하는 일반인 대상 천체 관측(저녁 8시부터 9시 사이) 및 우주과학천문대 프로그램 강좌 등을 들 수 있다.

2) 역사전통자원

역사전통자원에는 전통생활용품, 전통건축,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미술, 전통문학 등의 문화예술 부문과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의복, 지명, 세시풍속, 역사적 인물 및 배경, 풍수지리 등의 풍속 부문, 그리고 이를 활용한 전통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이 있다. 서울의 역사전통자원은 전통문화예술 13개, 세시풍속 자원 20개 등 총 33개의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1) 전통문화예술 자원

서울시에는 국립극장, 운현궁 상설무대, 서울놀이마당, 한국불교미술관 등 총 8개의 전통문화 공연·전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치구별 혹은 지역별로 전통문화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어 다채로운 전통문화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례로, ‘운현궁 상설무대 도랑광대 한마당’ 프로그램은 매주 일요일마다 운현궁 노랑당에서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송파구 석촌호수 서울 놀이마당에서는 송파구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공연기간 동안의 상세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전통문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이외에도 국궁(2곳), 태권도와 같은 전통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3곳)도 있어 다양한 역사전통 문화자원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 예술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자원으로서 야간에도 체험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2) 풍속 자원

풍속 자원에는 전통놀이, 전통음식, 전통의복, 지명, 세시풍속, 역사적 인물 및 배경, 풍수지리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인 서민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풍속 관련 자원뿐만 아니라, 궁중혼례 및 의복, 궁중음식 등과 같은 궁중 문화자원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에는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제야 및 설날 행사, 대보름맞이 행사, 단오민속축제, 추석 등 절기별 다양한 관광자원 및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남산골 한옥마을’의 경우 풍속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도 북촌문화센터,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 가회박물관 등을 통해 세시풍속 관련 문화행사가 운영된다. 특히 외국인 전통한옥생활 체험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 등 전통가옥에서 의·식·주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8개의 시설들이 있어 더욱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또다른 풍속자원으로는 ‘설화’를 들 수 있다. 설화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전해져온 이야기(story)로서 다양한 차원에서 구현가능하다. 서울시가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경우 해당 지역별로 극, 음악, 무용 등의 문화형태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계천 복원으로 설치될 청계천의 ‘다리’마다 해당 유래 및 역사적 배경을 고려한 명칭부여와 ‘이야기’ 구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명’의 유래를 설명하는 지역별 설화가 존재하여 각 지역의 역사전통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명의 유래나 관련 설화들은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방문객에게 기억하도록 하며, 주거민에게는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현재 서울시의 지명 중 영화 등의 문화자원에서 소재로 택해지거나 중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어 관광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인왕산, 마포, 왕십리, 말죽거리, 청계천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의 풍속 자원으로 궁중혼례, 왕비간택 의식, 왕궁수문장 교대식 등의 궁중문화자원이 있다. 특히 전통혼례 및 궁중음식 등의 역사문화자원은 외국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관광 매력물이며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되어 시민들에게도 의미있는 자원이다.

3) 문화예술자원

문화예술자원에는 공연, 영화, 전시, 도서 및 문자, 벽화 등이 해당된다. 현재 서울에는 공연장 58개, 전시장 60개, 심야영화상영장 12개, 자동차극장 6개, 그래피티 명소 4개 등 총 140개의 문화예술자원이 존재한다.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영화상영회를 개최하는 등 야간시간대의 활용이 늘고 있다.

문화예술자원 중 아직 명확한 문화예술자원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지 않은 것이 바로 ‘벽화’ 항목이다. 벽화는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문화의 표현수단으로 대학 주변 지역 및 특정 동호회 활동 공간, 혹은 상업시설의 내부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의미 있는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현재 신촌 연세대 주변지역과 홍익대 주변지역에 다양한 벽화가 조성되어 있으며, 압구정 한강시민공원 연결 지하보도(일명 압구리) 및 분당중앙공원 주변에도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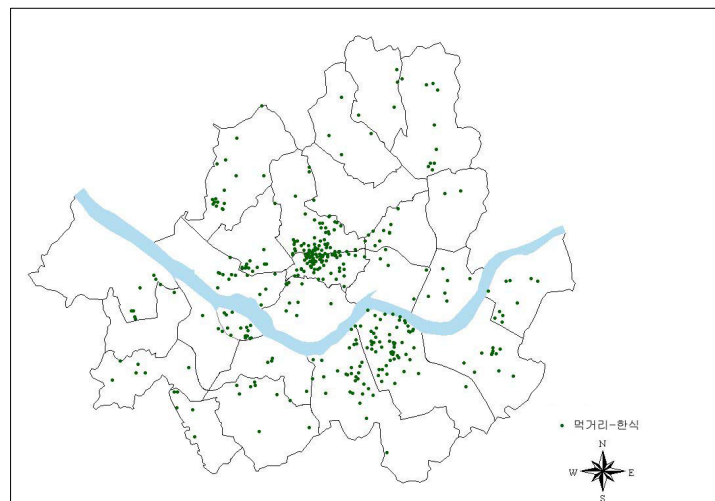
어 특정 문화집단의 취향을 표현하고 있다.

4) 생활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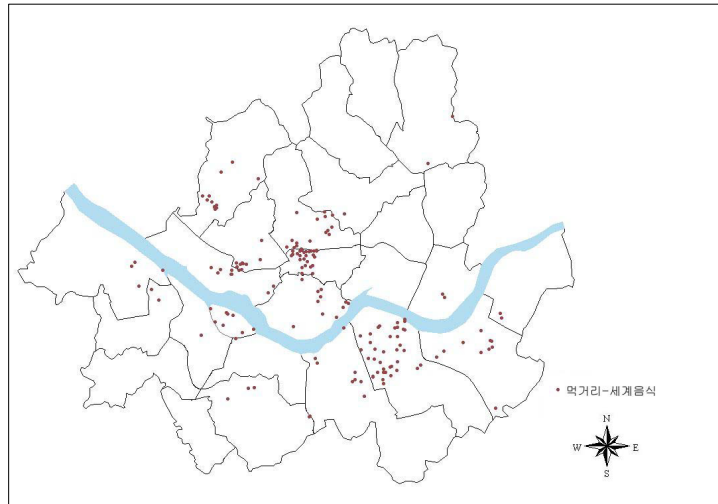
생활문화 자원은 방문 지역의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일상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쉴거리, 잘거리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장소로의 방문이나 직접적인 접촉 등을 매우 중요한 관광매력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정보로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서울에는 2004년 현재 먹거리 597곳, 살거리 42곳, 놀거리 및 즐길거리 90곳, 쉴거리 30곳, 잘거리 310곳 등 총 1069개의 야간생활문화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1) 먹거리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서울의 먹거리 자원은 크게 한국전통음식(한식), 세계음식(world food), 길거리음식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2004년 현재 서울에 존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점은 한식 398곳([그림 3-7]), 세계음식 176곳([그림 3-8]), 카페 23곳 등 총 597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그림 3-7] 서울의 한식점 분포



〔그림 3-8〕 서울의 세계음식점 분포

특히 한식의 경우 서울 도심부에만 수십년의 역사를 지닌 음식점들이 48개나 존재하고 있어 ([표 3-6]), 유서깊고 스토리가 있는 서울의 음식점들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표 3-6〕 서울 도심부의 대표적인 음식점과 음식거리

음식거리			
무교동 낙지골목 / 동대문종합시장 먹자골목 / 신당동 떡볶이거리 장충동 족발거리 / 종로 피맛골 / 청진동 해장국 골목			
음식점	비고	음식점	비고
우래옥	1946년 개업	오장동 냉면	회냉면 원조
석산정		평양면옥	회냉면
시골장터국밥	안동장터국밥재현	대림정	1963년 개업
곰보집	회냉면	중화	80여년의 역사(구 진아춘)
낙산냉면	함흥냉면	곰보추탕	2대에 걸쳐 37년째 영업
조선옥	1953년 개업	신당동 마복림 할머니네	1953년 개업
진포막국수	1973년 개업	할머니두부집	두부 전통명인장
할아버지손칼국수		질시루	떡도시락
원할머니 보쌈집		광화문집	돼지김치찌개의 원조(23년)
광고 과메기	11년 포항과메기	개성집	2대째 개성음식
대호식당	15년째 영업	원조낙원떡집	3대째 전통 궁중떡
양미옥	11년째 양귀이 전문	채동 마님순대	10년 전통 재동골 순대
우일집	30년 칼국수, 콩국수 전문	대성집	35년째 영업
조선옥	50년 한우갈비 냉면	리칸티나	1966년 개업
안성집	30년 숯불암소갈비	목포집	30여년째 영업(홍여회)
석산정	40년 곱창전골	영동골뱅이	35년 을지로 골뱅이의 원조
문화옥	50년 설농탕, 족탕 전문	소문난 추어탕집	1953년 개업
지화자	무형문화재, 궁중음식	신성원	1954년 개업
떠마지오	5대째 피자 만드는 가문	명동교자	1969년 개업
홍남집	1953년 개업	한일관	1939년 개업(최장 역사)
명동 함흥냉면	1960년 개업	성화장	1964년 개업

세계음식의 경우도 문화권별로, 지리적 위치별 혹은 재료 및 미각(taste)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이다. 또한 여타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외국인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여가활동 중 관심을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먹거리로 '길거리 음식'을 들 수 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길거리 음식'에 대하여 흥미로워 하고 있으며, 실제로 체험해보기도 한다. 특히 동대문 쇼핑지역이나 남대문 쇼핑지역, 종로, 명동 그리고 홍대 및 신촌 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길거리 음식'이 지역에 따라 특성을 보이기도 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통일된 외관이나 설치장소의 정비, 위생상태에 대한 공적 차원의 인증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살거리

살거리 자원으로 대표적인 것은 쇼핑 명소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쇼핑 명소로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명동, 롯데백화점, 이태원, 인사동 등을 들 수 있다. 쇼핑항목으로는 패션, 김, 인삼, 화장품, 김치, 기념품을 선호하고 있다. 서울의 쇼핑명소는 의류, 약재, 잡화, 가전, 골동품 등의 취급상품에 따라, 혹은 재래시장, 특수시장(약령시, 의류도매 등) 등의 시장특성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쇼핑특화거리로는 청담동 명품거리, 아현동 웨딩거리, 인사동 골동품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문정동 로데오거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살거리 명소로는 재래시장 13곳을 비롯하여, 현재 도심부에만도 42곳이 존재한다.

(3) 놀거리/즐길거리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자원 중 놀거리/즐길거리는 비교적 풍부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놀거리들의 대부분은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업소' 등으로 분류되어 문화관광자원으로 공식화되진 못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특히 유럽 및 미주권의 관광객들은 'pub'이나 'bar'를 방문하는 야간문화에 익숙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놀거리/즐길거리'에 대한 정보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의 놀거리/즐길거리 중, 음악(라이브공연, 전문음악클럽, LP전문카페 등)을 들으며 술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클럽(club)이나 카페, 바(bar) 등 음악관광(music & drink tourism) 명소는 현재 총 90개가 존재한다([표 3-6]). 유형별로 보면, DJ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테크노클럽이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록밴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록클럽이 24.4% 께즈클럽이 12.2% 1000장 이상의 LP를 감상할 수 있는 LP카페가 15.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마포구가 54개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강남구가 16% 서대문구가 약 7%를 차지하고 있

다.

[표 3-6] 서울의 'Music & Drink Tourism' 명소 현황

지역	클럽(가요)	클럽(리턴)	클럽(록)	클럽(뽕즈)	클럽(테크노)	LP카페	총합계
서대문구	0	0	0	0	0	1	1
강남구	0	2	2	2	6	2	14
관악구	0	1	0	0	0	1	2
광진구	0	0	0	0	1	0	1
동작구	0	0	1	0	0	0	1
마포구	0	5	17	5	24	3	54
서대문구	0	0	0	0	0	6	6
서초구	1	0	0	0	0	1	2
용산구	0	0	0	1	0	0	1
종로구	0	0	2	3	1	0	6
중구	2	0	0	0	0	0	2
총합계	3	8	22	11	32	14	90
총합계(%)	3.3	8.9	24.4	12.2	35.6	15.6	100.0

이 외에 놀거리/즐길거리로는 일반 나이트클럽,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있으며 이상의 놀거리/즐길거리 자원들을 테마별, 지역별로 자료화하여 night spot 가이드북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홍대지역, 신촌지역, 이태원지역, 강남역 주변지역, 종로, 명동, 잠실·신천지역, 삼성·코엑스 지역, 압구정·신사 지역 등이 이러한 놀거리/즐길거리의 주요 관광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외의 서울의 즐길거리로는 인라인 동호회, 스포츠댄스, 국궁, 전통문화전수회 등의 '동호회'를 통한 즐길거리와 놀이공원과 아이스링크 등 '놀이시설'을 통한 즐길거리, 야간공연과 심야영화 등 '예술'을 통한 즐길거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놀거리와 즐길거리들은 주간, 월간 단위로 발행되는 정보안내지 및 가이드북을 통한 일상적인 홍보가 시급하다. 또한 동호회를 통한 즐길거리의 경우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국인과의 교류가 가능한 자원임으로 관광객들의 장기적인 체류와 재방문 기회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쉼거리

야간문화관광 자원 중 쉼거리는 크게 '보건관광자원'과 '수양관광자원'으로 구분된다. 보건관광자원은 찜질방, 사우나, 에스테틱, 마사지 등의 업소를 의미하며 수양관광자원은 템플스테이, 선, 요가, 아로마테라피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보건관광자원은 약 20여곳 존재하며, 수양관광자원은 약 10여곳 존재한다. 특히 수양관광 중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temple stay)'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새벽 예불에서 저녁 공양에 이르기까지의 스님들 수행생활을 공개함은 물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5) 잘거리

잘거리는 외국인 관광객 및 도시 주민을 위한 일반적인 숙박시설에서부터 전통가옥체험 및 템플스테이까지 광범위하다. 일반적인 숙박시설에는 게스트하우스, 호텔, 월드인 등이 포함된다. 장기간 체류하는 관광객의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여 저렴한 숙박비로 인한 경제적인 이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만나는 문화적 이점도 누릴 수 있다. 현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119개, 월드인 147개, 게스트하우스 14개, 캠핑장 1개, 템플스테이 6곳, 유스호스텔 2개 등 총 310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5) 산업경제자원

산업경제 부문의 문화관광자원으로는 테마파크, 복합문화공간 등의 놀이시설, 전시장 등의 컨벤션시설, 아름다운 건물 및 대형서점·대형음반매장과 같이 특정 상업기능이 집중된 상업시설 등이 있다. 서울에는 현재 놀이시설 7개, 상업시설 7개, 컨벤션시설 4개 등 총 18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6)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시간대별 분포 및 프로그램 개발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요약해보면 [표 3-7]에서 볼 수 있듯이, 약 1400여개의 자원이 존재한다.

【표 3-7】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 현황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

구분	현황	프로그램 개발 방향
자연생태자원	190개 (동식물원 6개, 생태산림 174개, 천문자원 10개)	야간생태체험 프로그램
역사전통자원	33개 (전통문화예술 13개, 세시풍속 20개)	전통문화시설 야간 운영 전통한옥생활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자원	140개 (심야영화상영장 12개, 자동차극장 6개, 공연장 58개, 전시장 60개, 그래피티 명소 4개)	문화예술시설 야간운영
생활문화자원	1,069개 (먹거리 597곳, 살거리 42곳, 놀거리 90곳, 쉴거리 30곳, 잘거리 310개)	야간문화관광 홍보가이드북 제작 테마투어코스
산업경제자원	18개소 (놀이시설 7개, 상업시설 7개, 컨벤션시설 4개)	연계 프로그램
계	1,450개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시간대 파악이 가능한 조사대상 544개 자원의 시간대별 분포를 보면, 22시 이전에 약 65%가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야간과 심야로 나누어보면, 자정까지 전체 자원의 86%가 운영을 종료하고 있어, 심야에 운영하는 자원은 14%를 차지하고 있다(【표 3-8】).

【표 3-8】 주제별 야간문화관광자원의 종료시간대 분포

대분류	중분류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0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합계
주제별	자연생태	4	2	0	0	3	1	1	0	0	0	0	0	0	11
	역사전통	1	1	0	1	1	0	0	0	0	0	0	0	5	9
	문화예술	0	0	0	0	0	0	2	2	8	1	4	0	2	19
	생활문화	0	2	7	51	268	75	28	4	12	2	1	2	33	485
	산업경제	0	4	0	2	7	3	4	0	0	0	0	0	0	20
전체		5	9	7	54	279	79	35	6	20	3	5	2	40	544
전체(%)		0.9	1.7	1.3	9.9	51.3	14.5	6.4	1.1	3.7	0.6	0.9	0.4	7.4	100.0
누적(%)		0.9	2.6	3.9	13.8	65.1	79.6	86.0	87.1	90.8	91.4	92.3	92.7	100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연생태 자원과 산업경제 자원은 자정 이전에 모두 운영을 종료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자원은 모두 자정 이후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생활문화 자원의 경우는 55%가 22시에 운영을 종료하는 등, 약 89%가 자정 이전에 운영을 종료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주제별 자원을 활용한 향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향은 크게 야간생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통한옥생활체험 프로그램, 문화시설의 야간 운영, 테마투어코스 개발, 홍보가이드북 제작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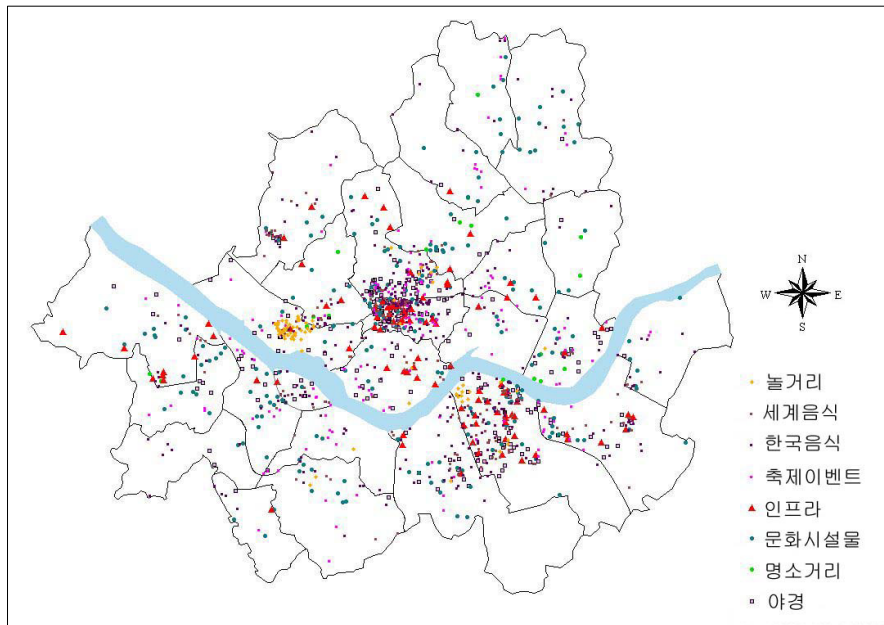
제2절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1. 자치구별 야간문화관광자원

각 자치구별로 야간문화관광자원의 현황 및 분포를 보면 [표 3-9], [그림 3-9]와 같다.

[표 3-9]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현황

지역	경관	명소 거리	문화 시설물	축제 이벤트	인프라	먹거리	놀이거리	합계	합계 (%)
강남구	42	2	30	7	22	137	14	254	17.1
강동구	1	0	6	2	0	13	0	22	1.5
강북구	0	1	5	6	0	4	0	16	1.1
강서구	4	0	10	2	8	10	0	34	2.3
관악구	1	0	10	4	0	14	2	31	2.1
광진구	10	3	7	9	2	8	1	40	2.7
구로구	2	0	2	0	0	7	0	11	0.7
금천구	1	0	3	2	1	4	0	11	0.7
노원구	1	0	11	3	0	11	0	26	1.8
도봉구	0	1	5	4	1	5	0	16	1.1
동대문구	0	2	5	5	3	9	0	24	1.6
동작구	1	0	2	9	0	6	1	19	1.3
마포구	13	2	3	5	2	24	54	103	6.9
서대문구	2	3	7	3	3	24	7	49	3.3
서초구	10	0	14	4	3	42	2	75	5.1
성동구	4	0	5	6	1	6	0	22	1.5
성북구	5	2	11	2	2	6	0	28	1.9
송파구	12	0	10	10	7	24	0	63	4.2
양천구	5	1	14	8	0	4	0	32	2.2
영등포구	14	0	16	13	2	25	0	70	4.7
용산구	13	0	7	11	8	19	1	59	4.0
은평구	0	0	3	2	1	10	0	16	1.1
종로구	29	1	22	23	8	68	6	157	10.6
중구	40	5	30	22	30	109	2	238	16.0
중랑구	0	2	6	1	0	2	0	11	0.7
주소불명확	6	0	0	45	0	6	0	57	3.8
총합계	216	25	244	208	104	597	90	14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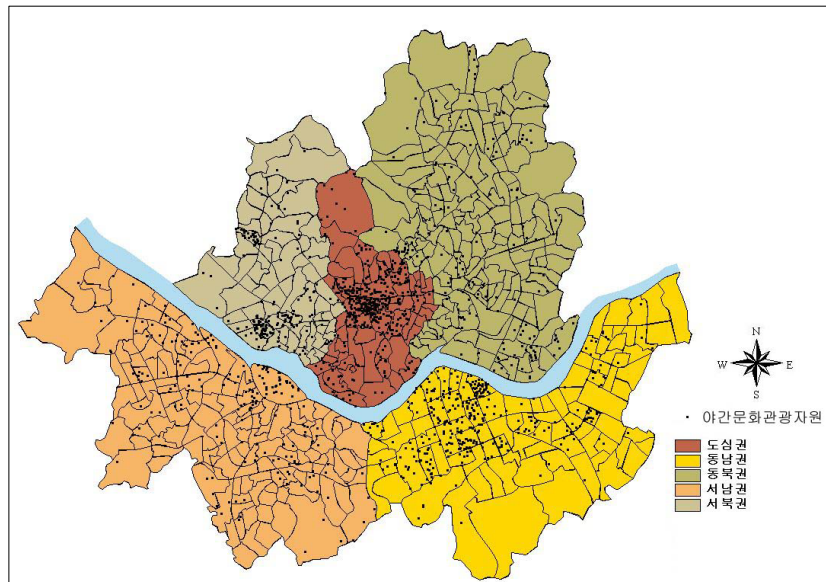


【그림 3-9】 지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분포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먹거리 및 놀거리가 분포하는 강남구가 17.1%로 가장 큰 집중도를 보이고 있고, 전통적인 도심지역인 중구와 종로구가 각각 16.0% 10.6%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대학이 밀집하여 있어 다양한 문화가 집합하는 마포구(6.9%)와 서대문구(3.3%), 교통인프라와 홍보인프라가 발달되어있는 영등포구(4.7%)와 용산구(4.0%)에도 야간문화관광자원이 비교적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반면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는 각각 1%미만으로 가장 낮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야경은 강남구(19%)와 중구(19%), 명소거리는 중구(20%), 문화시설물은 강남구(12%)와 중구(12%), 축제는 종로구(11%)와 중구(11%), 인프라는 중구(29%)와 강남구(21%), 먹거리는 강남구(23%)와 중구(18%), 놀거리는 마포구(60%), 강남구(16%)가 가장 큰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3-10]과 같다. 명동, 종로, 남대문 및 동대문, 대학로 등 도심권에 다양한 야간문화관광자원이 집중하고 있으며, 홍대지역과 신촌 지역을 포함하는 서북권은 놀거리를 중심으로 야간문화관광자원이 집중하고 있다. 압구정, 신사 및 강남역, 삼성, 신천 지역으로 이루어진 동남권에도 문화시설물 및 명소거리, 먹거리 중심의 야간문화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 권역별 야간문화관광자원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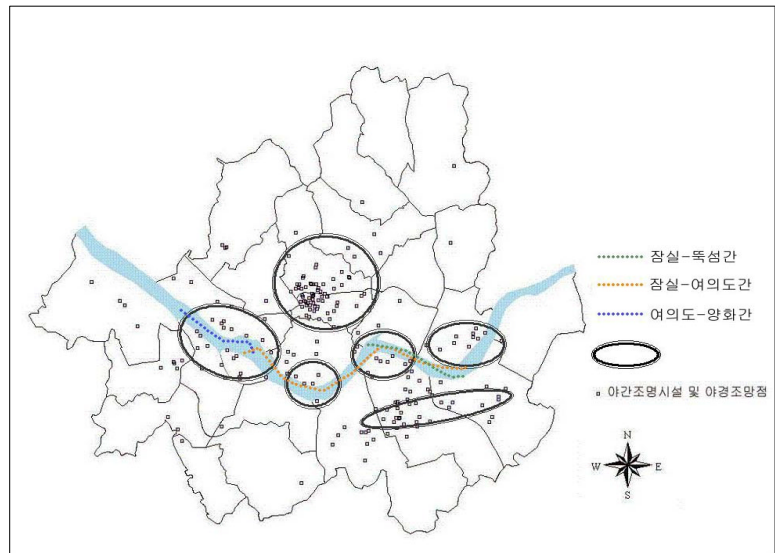
따라서 권역별로 주로 분포하는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테마를 구성하여 이를 활용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지역에 위치하는 숙박업소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접근이 편리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입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이 필요하다.

2 점·선·면적 야간문화관광자원

서울의 야간문화관광자원은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점·선·면의 지역적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시설물, 문화재 및 주요건축물 등은 점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이며, 한강교량 및 특화거리 등은 선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이다. 또한 점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이 집적한 지역, 혹은 점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과 선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등은 면적인 형태의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야경특구, 관광명소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야간시간에 활용이 가능한 문화시설물 및 문화재나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주요 건축물 등을 파악하여 권역화하는 것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이다. 또한 접근가능한 교통수단이나 경로 등을 동시에 파악하여 선적인 형태의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야경특구 및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야경특구의 경우 ‘서울사랑시민상 야간경관부문’을 수상하거나 이를 위하여 등록된 건물들의 점적인 분포를 토대로 6개의 야경지역을 구분해 볼 수 있다([그림 3-11]). 또한 서울타워, 63빌딩, 북악스카이웨이, 종로타워 및 한강과 인접한 장소들을 야경조망지점으로 하여 권역화 할 수도 있다. 이때 선적인 형태의 한강교량 및 도시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접근도를 높이고, 야경지역 내의 이동경로를 구성하여 개별적인 야경지구로 개발할 수 있다.



[그림 3-11] 야경특구 및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후보지

또한 관광특구 및 관광명소 등도 다양한 야간문화관광자원을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특화된 야간문화의 존재여부에 따라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으로도 활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홍대지역의 경우, 클럽이 밀집되어 있고 클럽데이와 사운드데이, 디제이페스티벌 등 다양한 클럽문화축제들이 존재하여 Music & Tourism의 차원에서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잠재력이 크다. 이태원 관광특구 및 명동·북창동 관광특구, 동대문 쇼핑관광특구 역시 야간 관광명소로 개발 가능하다. 특히 이들 지역은 관광특구별로 차별화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제3절 관리주체별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관리주체별로 살펴보면 시 운영 프로그램, 구별 운영 프로그램, 민간 운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시 운영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1)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

서울시티투어버스는 개별여행객을 위한 서틀형 투어버스로서, 노선은 도심순환코스, 고궁코스 2종류가 있다. 총 30개 정류장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내국인 관광

객과 가족관광, 외국인 개별여행객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일평균 탑승객은 220명으로 이중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40%를 차지한다. 서울시티투어와 서울시내 관광명소(14곳)가 제휴하여 해당명소 이용시 무료입장, 할인입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철과 시티투어 연계편의를 위해 서울역, 용산역 정류장을 정비·신설하고, 고속철 승객들이 시티투어버스를 이용시 15%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교통수단으로서 고속철, 열차, 지하철 등과의 환승 편의성을 제고하여 관광객들의 일일 서울관광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현재는 운행되지 않으나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심야노선이 운행된 바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되던 것으로, 야시장·심야극장·야간의 유흥업소 등이 등장하고 야간문화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개설된 노선이다. 야간에 교통체증이 없는 점 과 관광객이 방문 도시에서 야간문화(night life)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 등을 배경으로 개설되었다.

심야 시티투어버스의 노선은 숙박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저녁식사가 끝나는 오후 9시부터 늦은 취침을 할 수 있는 새벽 2시까지 운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고, 한강유람선 선착장이나 고속철과 연계해 서울의 중요한 야간문화관광자원인 한강을 비롯한 주요 야경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2) 도보관광코스 및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서울시는 4대문 안 주요 문화재, 고궁,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 구성한 도보관광코스를 전문 문화유산해설사의 안내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의 문화관광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4대문안 도보관광코스는 근대문화 중심지역(정동일대), 전통문화 중심지역(경복궁, 창경궁 일대), 젊음의 거리(대학로 일대), 쇼핑문화 중심지역(명동, 남대문 일대) 등 권역별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8월부터 덕수궁·정동코스, 경복궁·인사동코스, 종묘·창경궁코스 등 3개 코스를 문화유산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관광코스가 개발되어 있고, 대학로 및 남대문 일대의 2개 코스는 자율도보코스로 우선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였다. 2004년 3월부터는 기존 고궁중심의 5개 도보관광코스를 서울문화체험이 가능한 8개의 도보관광코스로 확대 운영하여 주요 관광상품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2006년 이후에는 북촌 및 청계천 지역 도보관광코스를 추가로 개발 운영하여 자율코스 2개 코스를 제외한 6개 코스에 전문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 국내외 관광객에게 직접 동행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야간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도보투어코스 프로그램은 부재하다. 따라서 도심 및 숙박업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살펴볼 수 있는 도보관광코스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대학로 등 문화지구내 도보투어코스, 야간조명이 설치된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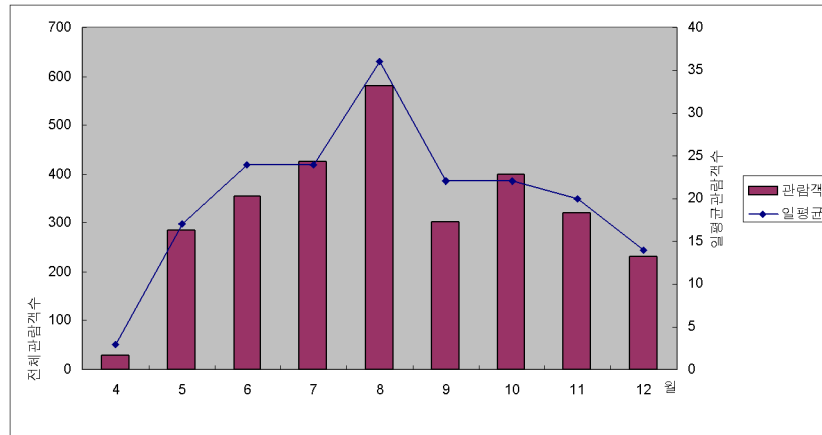
를 활용한 야경도보투어코스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유산해설사 프로그램 역시 문화유산과 관련되어 야간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 및 설화들을 스토리텔러(story teller)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3) 야간경관개선사업

서울시의 야간경관개선사업은 도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문화생활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의 측면과 더불어, 관광객의 야간활동을 보장하고 야경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사업이다. 특히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조성된 교량 야경과 한강시민공원, 선유도 등의 공원녹지시설, 주요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등을 돌아보는 '야경관람 코스'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3-22]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심권, 한강권, 강동권, 강남권 및 월드컵권으로 나누어 야경특구의 조성이 가능하며, 야간시티투어버스와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야경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사랑시민상'의 수상작들을 일정 기간 전시하는 행사를 통해 문화예술 및 문화행사 자원으로 활용가능하며, 수상작들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숙박업소와 연계하여, 야경과 먹거리, 놀거리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다. 나아가 야간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중 선호도를 조사해 모형제작 등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4) 문화시설 야간개방 프로그램

서울시의 문화시설물 중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은 직장인들의 문화 향유와 야간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야간 관람객 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하루평균 20명 내외로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12] 참조). 그러나 야간의 문화활동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기계발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인원도 늘고 있어 문화시설물의 야간개방은 중요한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림 3-12] 서울시립미술관 야간관람객 추이

또한 시립미술관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 특히 미술관 본관 및 야외광장 등에서 '미술관에서 함께 즐기는 팝스 콘서트'와 '가을밤 열린 음악회'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 매주 수요일마다 무료 영화상영회를 실시하여 야간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물의 야간개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야간문화관광에의 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수요 및 의식 조사를 하여 다양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5) 하이서울페스티벌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 전역을 축제공간화하여 매년 열리는 서울의 대표축제다. 특히 2004년에는 백야축제(White Night Festival)을 운영하여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높였다. 백야축제기간에는 명동 및 홍대지역 등 야간관광명소에서 디제이 페스티벌 등 지역거점축제가 개최되었다. 또한 서울월드컵공원에서 개최된 록페스티벌이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백야축제 메인행사 등은 세계문화축제로서의 위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였다. 백야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된 시청 PiG 쇼는 조명을 이용한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서, 파리의 리옹 시청사와 미국 필라델피아 시의 박물관을 이용한 레이저 쇼와 같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의미있는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5) 서울세계불꽃놀이, 서울드럼페스티벌 및 서울공연예술제

서울세계불꽃축제(Seoul World Firework Festival), 서울드럼페스티벌(Seoul Drum Festival) 및 서울공연예술제(Seoul Performing Art Festival)는 '하이서울페스티벌'과 함께 서울시 4대 축제로 분류되어 서울시가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02 월드컵을 맞아해 시작된 행사로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서울드림페스티벌은 국제적인 인지도가 높은 서울시 문화행사로서, 한국의 전통 타악기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전통 민속 타악기 및 현대 타악기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연제다. 서울공연예술제는 '서울무용제'와 '서울연극제'가 만나 2001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국내 최대의 순수공연예술 축제다.

2 민간 운영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1) 민간 여행업체 운영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소속 서울시 소재 150여개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일부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공연관람형, 전통문화체험형, 야경관람형, 야간쇼핑형, 야간쇼관람형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3-10]).

[표 3-10] 민간 운영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현황

유형	프로그램명	운영시간	프로그램 내용	참여비(단위:원)
공연 관람형	난타공연관람	20:00-21:30(주중) 17:00-19:20(주말)	넌버벌퍼포먼스 난타공연 관람	65,000
				85,000(VIP석)
	Beat of Korea	18:00-21:00	정동극장 전통공연관람, 한정식	70,000
	Jeongdong Theater	18:00-22:00	정동극장에서 전통공연관람	62,000
	Night Tour	17:30-22:00	정동극장에서 전통공연관람	62,000
	Night Tour	17:00-22:00	난타극장	62,000
	TokebiStorm Performance	-	-	65,000 85,000(VIP석)
전통 문화 체험형	Korea culture experience	17:00-20:00	한국의 다도 및 선채험, 김치강좌, 전통음식, 전통놀이 배우기	99,000
야경 관람형	night of Seoul	18:00-22:00	63빌딩 및 한강유람선	69,000
	Seoul Tower and Dongdaemun market tour	18:00-22:00	서울타워, 동대문시장	65,000
	Seoul Tower and Night Shopping	-	-	50,000
	Han River Ferry and Observatory	-	-	75,000
야간 쇼핑형	night shopping tour	18:00-22:00	서울타워,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이태원, 명동, 이대앞	69,000
	Night Tour	18:00-22:00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야간쇼 관람형	Korea culture night	18:00-22:00	서울타워, 한국의 집, 한정식	99,000(뷔페식) 115,000(플코스)
	Walker hill Gala Night	18:00-22:30	쉐라톤워커힐카지노, 한정식	99,000
	쉐라톤워커힐쇼	18:00-22:30	한강야경관람, 워커힐쇼, 한정식	97,000
	Korea culture night	18:00-22:00	한국의 집 전통공연, 한정식	95,000(뷔페식) 105,000(플코스)
	Night tour	16:00-19:00	한국의 집 전통공연, 한정식	95,000(뷔페식) 105,000(플코스)
	쉐라톤워커힐쇼	18:00-22:0	한강야경관람, 워커힐쇼, 한정식	97,000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 동대문, 남대문 쇼핑지역을 야간에 관람하는 프로그램이 주간 관광일정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선택사항으로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서울타워 전망대 관람, 인사동 산책, 난타 공연 관람, 한국의 집 방문, 웨라톤워커힐 카지노 방문 등이 있다.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바운드 업체의 경우는, 롯데월드 야간개장 방문 및 레이저쇼 관람, 야간한강유람선 탑승, 서울타워 전망대 방문 및 63빌딩 전망대 방문 등의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유럽 및 미주의 관광객들은 전통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민간 운영 시설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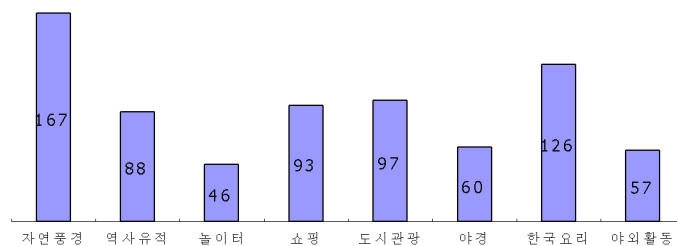
민간 운영 시설에서 운영하는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은 크게 놀이시설의 야간개장과 민간시설의 야간문화행사 등이 있다.

서울의 놀이공원 중 롯데월드는 백화점과 쇼핑몰, 호텔, 영화관, 스포츠센터, 아이스링크, 어드벤처, 매직아일랜드, 민속관 등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민간운영시설이다. 오후 10시 30분까지 야간개장을 하며 야간 레이저쇼가 진행된다. 또한 롯데월드나 민속관의 입장권이 있으면 양측 시설의 이용이 가능하여 더욱 편리하다. 또 다른 놀이시설로는 어린이대공원이 있다. 개원 당시 동양최대의 규모였던 이 곳은 교양시설, 유희시설, 조경시설, 휴식시설 및 놀이시설, '애니스토리'와 '세계파충류공원' 등이 구성되어 있다. 서울 동북권의 놀이시설로는 드림랜드가 있다. 놀이시설 27종, ,어린이극장, 야외공연장, 청소년회관, 옥외 수영장, 아이스링크, 눈썰매장과 물개쇼장, 골프연습장 등이 있다. 이 외에 과천 서울랜드에는 놀이·교양·편익·조경·휴양·운동·교통·관리시설 등 8개 부문에 250여 개의 각종 시설이 있고, 계절별로 야간개장을 하고 있다.

제4장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수요 및 욕구

제1절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수요 증대

기존의 설문조사를 보면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해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의 설문조사⁸⁾에 따르면, 희망하는 한국관광상품으로 전체 응답자의 30%가 '야경'을 꼽고 있다(그림 [4-1]).



[그림 4-1] 중국인의 한국관광상품 선호도

야경 희망자의 연령별 선호도를 보면, 20대가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0대가 25%, 40대가 17%, 10대가 11%를 차지해, 2-30대 청장년층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2-30대는 여행형태에서도 개별여행의 형태를 다른 연령대보다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여행자들이 자유롭게 야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⁹⁾에서도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중 72%가 야간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관광을 위해 방문한 장소로는 재래시장(29.0%)이 가장 많았으며, 카지노(19.3%), 단란주점(18.2%), 한국음식점(16.6%), 서울야경(14.9%), 나이트클럽(12.7%), 공연관람(10.5%) 순이었다.

외국 관광객이 생각하는 야간관광명소로는 한강공원, 남산, 남대문, 명동, 동대문 등이 꼽히기도 했다¹⁰⁾.

야간관광 시에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하여서는 응답자의 40.2%가 '언어소통'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불편'(16.9%), '야간관광정보'(14.9%), '야간관광 패키지상품'(7.7%) 등인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문제가 야간관광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조사기간: 2003.8.12~8.15 / 조사장소: 상해시 대형백화점 / 조사대상: 일반시민 / 표본크기: 220명 (유효: 200명) / 조사방법: 개별조사

9) 조사대상: 인천국제공항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 관광객 / 조사방법: 개별면접 / 조사기간: 2001.6.7~2001.7.7 / 표본크기: 362명(영어권 110, 일어권 110, 중국어권 142명)

10) 한국관광공사 외국인관광객 대상 2003년도 설문조사

제2절 내국인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및 욕구

내국인을 3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내국인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실태

구분	내용
여행형태	개별여행(74.1%)
시간대	자정이후(30.4%)
숙박연계 특이거리	차량으로 1시간 거리 (1-20대 도보가능거리 선호)
교통수단	지하철 > 택시
야간관광 불참이유	시간적 여유 부족, 관광정보 부족, 매력물 부족, 접근이동성 불편
시운영 프로그램 참여도/만족도	서울세계불꽃축제 > 한강유람선 > 하이서울페스티벌(참여도) 한강유람선 > 서울세계불꽃축제 > 공연관람(만족도)
야경관람지역	남산, 서울타워
전통문화공연	-
현대문화공연	심야영화, 야간공연
야간쇼핑지역	동대문, 명동
놀거리	pub&bar-신촌 / 유흥업소-강남 / 클럽: 홍대지역
문제점	접근과 이동의 불편함, 정보부족, 서비스미흡
프로그램 개발 방향	홍보가이드북 제작 배포 접근성·이동성 강화

조사대상자의 84.6%가 야간관광을 경험하였으며, 그 중 54.9%가 20대였고,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행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74.1%가 개별여행을 선호하고 있다. 야간관광시간대는 자정 이후가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3시까지가 25.6%, 자정까지가 22.8%를 차지해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는 자정이후까지, 3-40대는 자정까지 활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야간관광시 이용한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이 가장 많았으며, 지하철이 끊긴 이후엔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야간관광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거리로는 30대를 제외한 남녀 모두 차량으로 1시간 이내의 거리를 선호하며, 1-20대는 도보가능 거리를 선호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는 세계불꽃축제, 한강유람선탑승, 하이서울페스티벌 순으로 참여도를 보였으며, 만족도는 한강유람선탑승, 불꽃축제, 공연관람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은 놀이공원 야간개장(82%), 심야영화관람(80%), 문화공연관람(78%), 야간쇼핑(43%), 야경관람(43%), 노래방(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80.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고, '만족' 이상의 수준은 35.3%로 나타나,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서울의 야경관람은 주로 서울타워와 남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동대문과 명동을 중심으로

야간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놀거리(pub&bar, 유흥업소 등)는 신촌 및 강남지역에서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홍대지역의 클럽 역시 중요한 놀거리 명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접근 및 이동의 불편함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서비스 미흡 및 정보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홍보가이드북 제작 배포와 접근성 및 이동성 편의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제3절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및 욕구

외국인 관광객(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4-2]와 같다.

중국인 관광객은 야간문화관광을 위하여 야간쇼핑과 놀이공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본인과 영어권 관광객은 야간쇼핑, 놀이공원 방문, 별미음식관광, 길거리음식 체험, 'pub&bar' 방문, 유흥업소 방문, 미용관광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에 참여하고 있다.

[표 4-2] 외국인 관광객의 야간문화관광 수요 실태

구분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영어권
여행형태	패키지	개별여행	
시간대	오후10시	오후 11시	자정
숙박연계 투어거리	차량이동 30분 이내		차량이동 1시간 이내
교통수단	버스	택시	지하철, 택시
야간관광 불참이유	시간부족, 돈부족	시간부족 정보부족	시간부족, 이동불편
시운영 프로그램 참여도	한강유람선	한강유람선, 시티투어, 삼청각, 하이서울페스티벌	한강유람선, 시티투어, 하이서울페스티벌, 예술의 전당
야경관람지역	서울타워 및 남산, 한강교량, 한강시민공원		
전통문화공연	국립국악원, 한국의집, 정동극장		
현대문화공연	난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야간쇼핑지역	동대문	명동	이태원
놀거리	신촌 홍대지역	명동, 도심	이태원 신사동, 강남
문제점	의사소통, 정보부족, 매력물 부재, 접근 및 이동불편		
프로그램 개발 방향	홍보가이드북 제작 배포 접근성-이동성 강화		
	서북권 중심 저가관광	도심 중심 다양화	용산권 중심 다양화

주된 야간관광활동 지역으로는, 중국인 관광객은 도심지역과 신촌·홍대 지역을 이용하며 강

남 지역에서 야간관광을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은 명동지역을 중심으로, 영어권 관광객은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관광활동을 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야간 관광활동의 문제점으로 세 집단 모두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중국인 관광객은 비합리적인 가격을, 일본인 관광객은 서비스의 부족과 정보부족을, 영어권 관광객은 정보부족과 매력물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내외 타도시들과 서울의 야간문화관광을 비교하였을 때, 일본인 관광객의 88.1%와 영어권 관광객의 87.7%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징점으로 저렴한 가격과 안전함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중국인 관광객을 위하여서는 놀이공원, 야간쇼핑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화하고, 도심 및 신촌·홍대앞 등의 서북지역을 전략지역화 하며, 저렴한 가격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과 영어권 관광객을 위해서는 놀이공원, 야간쇼핑 뿐만 아니라 길거리 음식이나 별미음식을 경험하는 식도락 여행, pub&bar, 유흥업소 이용 등의 자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으로는 일본 관광객 대상으로는 도심권 및 명동 지역을, 영어권 관광객 대상으로는 용산과 이태원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 관광객을 위해서는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을, 영어권 관광객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보 제공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제5장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방안

제1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서울시민의 일과 후 야간시간대의 활발한 문화활동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야간문화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표 5-1]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크게 네가지 즉, '경제성', '흥미성', '접근성', '안정성' 등을 원칙으로 제안한다.

[표 5-1]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원칙

원칙	경제성	-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업체) -> 단체관광객 타깃 관광중심형 프로그램 위주 - 비용부담이 적어야 한다(시민) -> 개별관광객과 시민타깃 여가중심형 프로그램 위주
	흥미성	- 재미와 매력이 있어야 한다 (1단계) 소재개발 (2단계) 컨셉(낭만·사랑/오락·유흥/휴양·보양)개발 (3단계) story부여 (4단계) 연계코스화
	접근성	-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 교통수단 + 홍보물 + 숙소근접성
	안정성	-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 야간환경개선 - 지속적·체계적이어야 한다 -> 행정지원 프로그램 및 시스템

첫째, '경제성'의 원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어야 한다는 점을 모두 포함한다. 우선, 관광업계의 경우,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추가적인 비용 및 안전부담을 많이 호소함으로 여행사 등 업계와 연계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주로 단체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관광중심형 프로그램을 위주로 한다. 반면 시민들이나 개별관광객들에게는 여가선용의 차원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가중심형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둘째, '흥미성'의 원칙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재미와 매력을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발토록 야간문화관광 매력물들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1단계로, '소재(contents) 개발'이다. 기존 자원과 향후 자원화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소재를 개발한다. 2단계는 '컨셉(concept) 개발'이다. 야간문

화관광자원이 지닌 특성 즉, “낭만과 사랑”, “오락과 유흥”, “휴양과 보양” 등을 바탕으로 컨셉을 다양화하여 자원들을 배치시킨다. 3단계는 ‘스토리(story) 개발’이다. 야간문화관광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관광객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개발하여 부여한다. 마지막 4단계는 ‘연계코스(course) 개발’이다. 컨셉과 스토리에 따른 자원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관광코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들도 서로 연계하여 관광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발적이고 평면적인 관광자원들을 입체화하여 매력적인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화함으로써 방문자들의 관광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접근성’의 원칙은 관광의 효율성과 만족도의 증진을 위해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강의 경우 풍부한 수력과 넓은 하폭, 역동적인 야경을 지니고 있어 대단히 매력적인 야간문화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요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전철역과도 거리가 멀어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다. 따라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수단을 개설하거나 재배치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 시간적 효율성을 위해 야간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물이나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라인의 체계화 등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또한 관광객의 편리한 이동과 야간관광활동에의 심리적 편안함을 위하여 숙소에 근접한 야간문화관광자원들을 프로그램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성’의 원칙은 위험하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으로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야간시간대의 이동과 활동은 시야확보가 주간시간대에 비해 용이치 않고, 불안감이 커짐으로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야간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가로등과 같은 야간조명 설치나 보도 위에 발광물질로 된 사인(sign) 설치 등의 물리적인 환경 정비에서부터, 서울의 ‘안전성’ 이미지를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종합적인 노력까지를 포함한다. 아울러, 건전하고 안전한 야간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인증제 및 포상제,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호조항의 제정, 관광안내소의 연장운영, 관광안내전화 및 야간관광 원스탑정보센터의 설치 등의 행정지원체계 정립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제2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안

1. 스토리가 있는 야경투어 프로그램(*Seoul Lightscape T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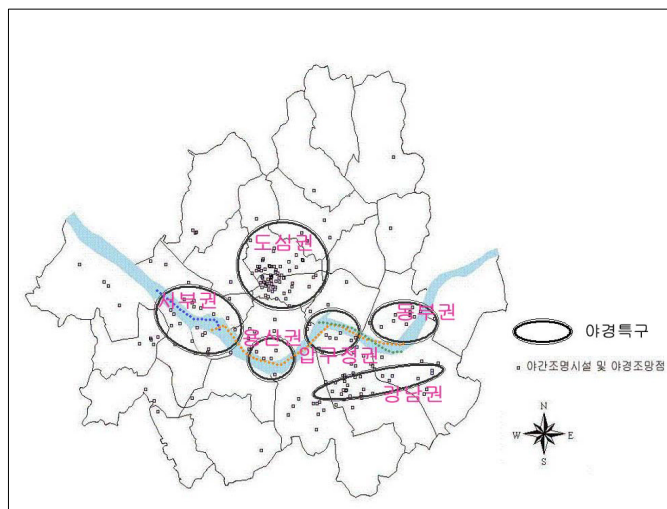
서울의 야경투어 프로그램은 크게 세가지 투어프로그램 즉, ‘야경특구 테마투어(*Seoul*

Lightscape District Tour)', '야경건축물 투어(Light Up Seoul Tour)', '한강 조망 투어(Beautiful Han River Tour)'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투어 콘텐츠와 연계코스 개발뿐만 아니라, 안내판과 보도 안내 표식 등 안내 및 홍보인프라 설치, 야간 전용 투어 교통수단 개설, 업서·모형물·패션·악세서리 등 야경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제작 등이 프로그램 개발에 포함된다.

1) 야경특구 테마투어(Σεουλ Λιγ ητοχοπε Διοτριχτ Τουρ)

서울시내 야간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야간조명 설치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그림 5-1], [표 5-2]에서 보듯, 도심권, 서부권, 용산권, 압구정권, 강남권, 동부권 등 총 6개의 야경특구를 선정하고, 특구별 테마투어 프로그램을 구성 할 수 있다.

먼저, '도심권'은 명동과 종로, 동대문, 청계천, 혜화동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역사'를 테마로 하여, 문화재 야경을 중심으로, 도심의 문화시설물과 빌딩 스카이라인 야경조망, 생활 문화 자원 등을 연계하는 역사적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림 5-1] 서울의 야경특구

'서부권'은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선유도, 홍대·신촌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역동성'을 테마로 하여, 월드컵 경기장 야경과 선유도 야경, 여의도 선착장 유람선 등을 중심으로, 여의도 빌딩 야경, 홍대·신촌 생활문화자원 등을 연계하는 역동적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용산권'은 서울타워와 용산, 이태원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이국성'을 테마로하여, 이태원과 용산의 쇼핑 등 생활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서울타워 및 남산도로 야경조망을 연계하는 이국적 야경특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압구정권’은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고품격’을 테마로 하여, 압구정·청담지역의 건축물 야경과 빌딩 스카이라운지를 중심으로, 한강시민공원과 생활문화 자원 등을 연계하는 고품격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강남권’은 테헤란로, 강남역, 삼성동, 잠실 지역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첨단’을 테마로 하여, 테헤란로 주변 첨단지식산업 벨리 건축물 야경을 중심으로,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신천 생활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고품격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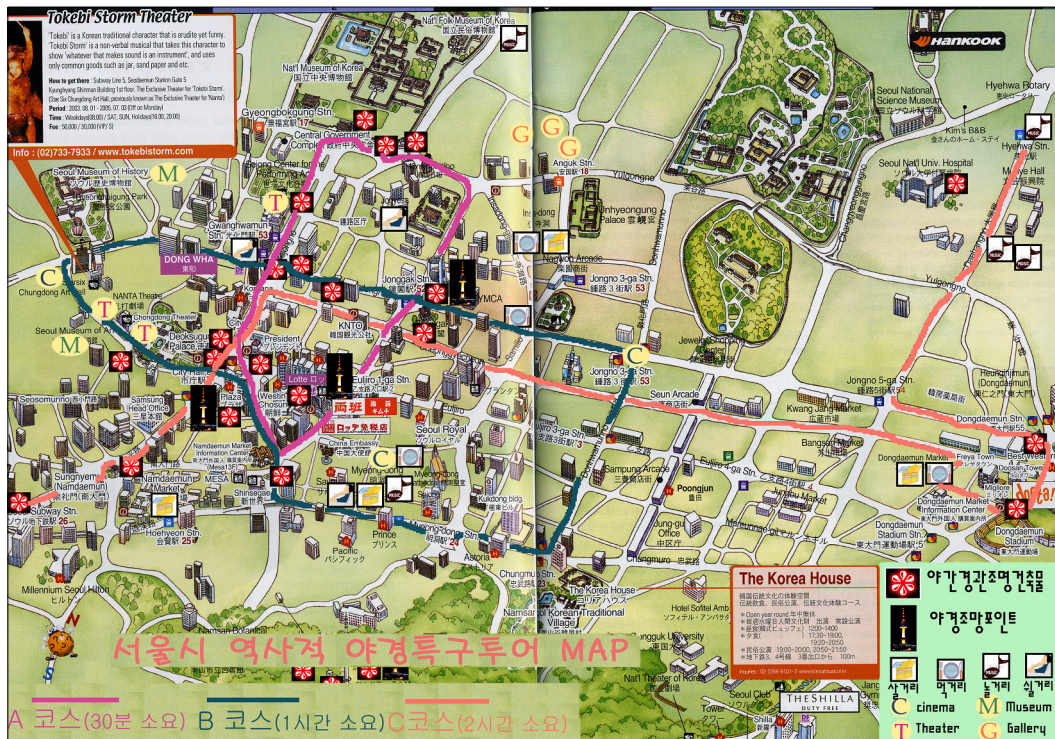
‘동부권’은 구의동과 광나루, 천호, 화양동을 포괄하는 구간으로, ‘옛나루’를 테마로 하여, 위커힐·광나루의 한강야경 조망을 중심으로, 구의동 테크노마트와 화양·천호지역의 생활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옛나루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표 5-2】 서울의 야경특구 투어 프로그램

야경특구		주요지역	주요 콘텐츠
도심권	역사적 야경특구 historical lightscape district	명동 종로 청계천 동대문 혜화동	· 야간 역사문화로 탐방 (종로, 세종로, 정동, 청계천, 혜화동 문화재야간조명) · 도심 지역 문화시설물 야간조명 · 도심 빌딩 스카이라운지 도시야경조명 · 생활문화 야간관광자원 탐방 (명동·종로·대학로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서부권	역동적 야경특구 dynamic lightscape district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공원 선유도 홍대지역 신촌 여의도	· 역동적인 2002월드컵 현장 탐방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 야간조명) · 선유도 공원 한강조망 · 여의도 선착장에서 양화지구 간 한강유람선 · 여의도 주요기관 건물 야간조명 · 여의도지역 빌딩스카이라운지 도시야경조명 · 생활문화 야간관광자원 탐방 (홍대앞, 신촌지역 먹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용산권	이국적 야경특구 exotic lightscape district	서울타워 용산 이태원	· 높이 240m의 서울타워 야경조망 · 남산도로를 이용한 야경조망 · 용산·이태원 지역 문화시설물 야간조명 · 생활문화 야간관광자원 탐방 (용산·이태원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압구정권	고품격 야경특구 highliving lightscape district	신사 압구정 청담	· 포스트모던 건축물 야간조명 (압구정 지역 백화점 및 청담동 부티크) · 인접 한강조망 (한강시민공원 압구정지구 및 잠원지구) · 압구정·신사지역 빌딩스카이라운지 야경조망 · 생활문화 야간문화관광자원 탐방 (압구정·청담·신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살거리, 야간운동시설)
강남권	첨단적 야경특구 technocrat lightscape district	강남역 테헤란로 삼성역 종합운동장 잠실	· 첨단지식산업밸리 관련건물 야간조명 (강남역, 테헤란로, 삼성) · 문화시설물 야간조명 (삼성동 무역센터·COEX, 테헤란로 공연장, 종합운동장·올림픽로 조형물, 테헤란로 인접 건물 조형물) ·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한강조망 · 빌딩 스카이라운지 도시야경조망 · 생활문화 야간문화관광자원 (강남역, 삼성, 잠실, 신천 지역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살거리)
동부권	옛나루 야경특구 oldferry moorings lightscape district	구의동 광나루 천호 화양동	· 가장 넓은 한강폭을 조망가능 지점 (워커힐 호텔 및 아차산지역, 천호지역) · 한강교량 조망 · 한강시민공원 천호지구 한강조망 · 레크노마트 및 기타 빌딩 스카이라운지 · 생활문화 야간문화관광자원 탐방 (구의동, 광나루, 화양동, 천호 지역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 살거리)

이상의 각 야경특구들은 도보로 이동 가능하도록 숙박업소들의 분포를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다. 또한 한강유람선의 세 노선(잠실-뚝섬/잠실-여의도/여의도-양화)을 포함하거나 주요 한강교량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입체적인 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각 지역별로 야간조명이 설치된 건축물이나 교량뿐만 아니라 먹거리 및 놀거리, 혹은 한강조망이 유리한 지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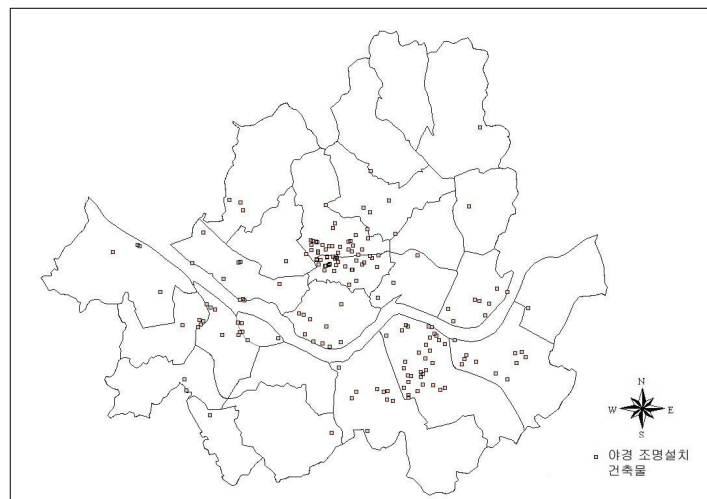
다양한 야간문화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심권 역사적 야경특구의 경우, 특구 내에서도 숙소를 중심으로 A코스(30분 소요), B코스(1시간 소요), C코스(2시간 소요) 등 시간대별 투어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고, 인근의 생활문화자원(살거리, 먹거리, 놀거리, 쉴거리)과 영화관(C), 박물관(M), 소극장(T), 갤러리(G) 등의 문화예술자원을 코스와 연계시킬 수 있다([그림 5-2 참조]).



[그림 5-2] 서울 도심권 야경특구 투어 코스 예

2) 야경 건축물 투어(*Λιγντ Υπ Σευλ Τουρ*)

서울시내에는 총 168개의 야간조명 건축물이 존재한다([그림 5-3]). 여기에는 문화재 26개소, 교량 13개소, 공공시설물 36개소, 민간건축물 93개소가 포함된다. 이들 건축물들의 야간조명은 차별적인 이미지 부여를 위한 컨셉과 매력을 지니도록 디자인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야경 대표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해당 디자인 컨셉을 스토리화하여 야경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가지 즉, ‘야간 역사문화탐방로’, ‘야경 조명 수상 건축물 탐방’, ‘한강 교량 야경투어’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그림 5-3] 서울시의 야경조명건축물 분포도

(1) 야간 역사문화탐방로 프로그램

먼저, 문화재 및 역사적인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야간 역사문화탐방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이 때, 각 문화재별로 역사적 유래와 사건, 얽힌 이야기, 야경 컨셉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야간조명 문화재([표 5-4])를 역사적 시대 순서에 따라 배열하거나, 지리적 근접성에 따라 순서화하여 투어코스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간 역사문화탐방로를 안내하는 가이드북 제작과 전문가이드 요원 배치뿐만 아니라, 안내방송 헤드폰 등을 관광안내소에서 대여하는 등의 홍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동의 안전함과 원활함을 위하여 탐방로에 관광객의 눈에 잘 띄 수 있도록 발광물질의 사인(sigh)이나 표식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표 5-3] 야경 조성 문화재 현황

지역	명칭	위치	지역	명칭	위치
종로구	승례문	남대문1가	중구	대한문	중구 정동
	홍인지문	창신동		서울역사	중구 봉래동 2가 122
	돈화문	와룡동 2-71		광희문	중구 광희동
	보신각	관철동 45		남산 봉수대	중구 예장동
	동십자각	사간동 126		남산 팔각정	중구 예장동
	혜화문	혜화동 교차로 부근		남산골 한옥마을	중구 회현동
	청경비각	교보빌딩 옆		덕수궁 정문	중구 서소문동
	대한의원	연건동		덕수궁 중화문	중구 서소문동
	홍지문	홍지동		덕수궁 중화전	중구 서소문동
	경복궁 돌담길	사간동 126		원구단	중구 소공동 87-0
	경복궁 경회루	창운동	마포구	잠두봉 유적	마포구 양화동
	경복궁 근정전	창운동	서대문구	독립문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공원
	경복궁 흥례문	창운동			
	광화문	경복궁내			

(2) 야경조명 수상 건축물 탐방 프로그램

또 다른 야경 건축물 투어코스로 서울사랑시민상 야간경관조명부문을 수상한 건축물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수상작들 중 접근이 용이한 약 25개 내외의 건축물([표 5-4])을 중심으로 야경 투어코스화할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지역별로 분류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토록 하거나 이들 건축물을 돌아보는 교통수단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투어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현재용도, 과거의 용도 및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컨셉 등을 중심으로 스토리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민사랑상 야간 경관조명부문 후보 신청 서류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스토리나 컨셉을 명시하도록 하여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어의 안전함과 편리함을 위하여 코스의 수상작 별로 수상작임을 안내하는 안내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도보 경로 상의 표식뿐만 아니라, 자가 운전으로 접근하고자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안내표지판 역시 차별적인 이미지나 상징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표 5-4】 서울사랑시민상 야경 조명 수상 건축물

지역	수상작	위치
중구	서울역사	봉래동 2가 122
	승래문	남대문로 1가
	서울시청	을지로 1가
	월드컵 홍보관 상징 조형물	태평로 1가 68-1
종로구	종로타워	종로2가 6
	동아미디어 센터	서린동 159-1
	동십자각	사간동 129
	서울대학교병원(구 대한의원 본관)	연건동 28-12
마포구	가양대교	상암동~강서구 가양동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성산동 515
	월드컵경기장역 썬큰광장	월드컵 경기장역 외부광장
광진구	올림픽 대교	광진구 구의동~송파구 풍납동
강남구	코스모타워	대치동 1002
	포스코 경영정보센터	대치동 892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동 515
	두산중공업(구 한국중공업)	역삼동 838
	현대백화점 본점	압구정동 423
	루이비통 청담동 매장	청담동
	스타타워 공개공지	역삼1동 737
서초구	서초IC 녹지대 분수광장	서초동
송파구	가락동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가락동
영등포구	알리안츠 여의도 사옥	여의도동 45-12
	한국방송공사	여의도동 18
	선유도	양화동 95
강서구	방화대교	방화동~경기도 고양시
기타	강변북로	
	지하철 6, 7호선 캐노피	내방역, 청담역, 효창공원역 등

(3) 한강 교량 야경 투어 프로그램

현재 야경이 조성되어 있는 한강 교량은 총 13개다. 밤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조도(照度)를 낮춘 서강대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량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새벽 3시까지 야경 조명을 실시하고 있고, 교량의 물리적 조형물 디자인과 야간조명 컨셉이 차별화되어 있다.

[표 5-5] 야경 조명 설치 한강 교량 현황

교량	구간	교량	구간
청담대교	광진구 자양동 - 강남구 청담동	반포대교	용산구 서빙고동 - 서초구 서초동
올림픽대교	광진구 구의동 - 송파구 풍납동	한강대교	용산구 한강로 - 동작구 노량진본동
가양대교	마포구 상암동 - 강서구 가양동	잠실대교	광진구 자양동 - 송파구 잠실동
원효대교	용산구 원효로 -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화대교	마포구 합정동 - 영등포구 당산동
성산대교	마포구 망원동 - 영등포구 양평동	당산철교	마포구 합정동 - 영등포구 당산동
동호대교	성동구 옥수동 -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교	광진구 광장동 - 강동구 천호동
동작대교	용산구 이촌동 - 서초구 반포동		

그러나 조명 컨셉에 대한 시민들의 의미해석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야경에 얽힌 ‘스토리’가 개발되지 않아 낮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교량에 대한 디자인 컨셉과 이미지에 따른 재미있고 매력적인 스토리를 부여하여 연계코스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강 교량은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한강유람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선적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강 교량의 야간조명을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선, 도보접근이 용이하도록 지하철역에서부터 도보로 접근가능한 교량을 발굴하고 접근 경로에는 발광물질 등의 안내표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 N라인(night line bus) 혹은 L라인(light line bus) 등의 투어버스 노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운전기사를 야경 전문가이드로 활용하거나, 투어버스 이용객을 위한 전문가이드를 배치할 수도 있다. 아울러 한강교량에 대한 안내지 등의 홍보책자 및 교량 야경엽서 등의 기념품도 투어버스 내에 구비되어야 한다.

3) 한강 조망 투어(Βεωπιφλ Ηαv Ριτερ Τουρ/ Ηαv Ριτερ Πτεαυρε Βοατ Τουρ)

매력적인 한강의 야경을 감상하기 위하여 시민과 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한강유람선을 이용하거나 한강시민공원을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 인접 공공운영 시설들이 적어 한강 야경 감상을 어렵게 하고 어렵다. 따라서 한강변에 위치하여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한강변의 개인 운영 카페나 건물 스카이라운지 등의 조망 지점들을 발굴하고 이를 투어코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유람선도 다양한 스토리와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강조망 투어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 한강 야경 조망 카페 투어

서울에서 야간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망지점은 총 25개다. 대부분의 시설들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운영된다. 한강을 직접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점들로는 한강 및 서울 전역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서울타워’를 비롯, 한강 북쪽 지역에 10개소, 한강 남쪽지

역에 4개소가 있다. 이외 10개 조망지점들은 도심지역에서 높은 위치로 인해 한강이 조망되는 지점들이다. 이러한 조망지점들은 레스토랑이거나 카페로서 방문시 먹거리 및 놀거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 특히 한강을 면하고 있는 주요호텔들에는 식당이나 pub&bar 및 아이스링크 등이 마련되어 있어 야경전망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거리들이 있다.

따라서 위의 지점들을 방문하기 용이하도록 교통편과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를 소개하는 등 해당 지점들의 매력을 상세히 안내한 홍보물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자리를 꾸미거나 당 업소 및 시설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업소 및 시설의 특성을 활용한 스토리를 부여하고 포토 포인트(photo point), 프로포즈 포인트(propose point), 등의 다양한 관광매력물로 개발하여야한다.

(2) 한강 유람선 투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 개의 한강 유람선 코스를 중심으로, 조망 가능한 야경에 대한 스토리를 구상하고, 다양한 선상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강유람선에서 조망가능한 교량에 대한 스토리나 기타 건축물 및 문화재에 대한 스토리를 해당 노선별로 구성해 안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의도 선착장에서 양화·난지지구를 운항하는 유람선의 경우 '서강대교의 낮은 조도와 철새 도래지로서의 밤섬 생태계', '밤섬에 대한 유래', '절두산 성지의 역사적 배경과 사건들', '국회의사당과 한국의 민주주의', '63빌딩과 한국의 현대건축', '선유도와 아름다운 선유교', '난지 및 양화의 지명 유래', '난지공원의 역사와 매력', '성산대교 및 양화대교의 이야기들' 과 같은 다양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선내 음성안내 및 영상안내가 가능하며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물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시간에 월드컵 분수를 조명과 함께 보여주거나 수면 스크린을 이용한 레이저쇼 등도 가능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4) 야경 관련 해외사례

(1) 홍콩

홍콩은 도시 내 고층건물들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함과 동시에 해안지역에서 조망가능한 야경을 구성하고 있다. 서울의 남산과 같은 빅토리아 피크에서 홍콩 전체의 야경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일한 고도에서도 홍콩의 전체적인 야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빅토리아 항에서 실시되는 멀티미디어쇼나 레이저쇼를 야경자원화하고, 센트럴지역의 건물벽면에 빛과 조명을 이용한 야경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홍콩의 영화 및 영화배우들과 관련된 명소인 스타스트리트(star street)를 개발하여 조명을 설치하고 보도 표면을 장식하는 등 야경프로그램화하고 있다.

(2) 요코하마

요코하마는 시 주관으로 야경연출사업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역사적 건조물이나 조명실험 실적이 있고, 연출효과가 인정되는 시설, 기타 협의회에서 인정한 시설물 등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도시의 야간경관을 개선하였다. 야경개선사업의 명칭은 'Light up 요코하마'이며 관광수입 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3) 파리

파리는 야간경관지구화 사업, 야간조명을 이용한 축제의 개발 등의 야간경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리는 '빛의 도시(Mille Lumen)'라는 모토와 도시미관의 향상, 생활의 시공간 확대, 안전보장 등을 목표로 야간경관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야간경관 지구화사업은 중심축(루브르 박물관~상제리제~개선문~라데팡스), 동부축(세느강 양안지역), 북동부축(라빌레트 구역) 등 세 개의 야간경관지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경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992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세느강 다리 조명을 설치, 야간조명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4) 리용

리용은 전체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으로 야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도로들을 중심으로 망상조직을 강조하며 야간 이동시의 코스의 식별을 증진시키고, 리용시로 접근하는 길을 따라 빛의 스펙타클을 창출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축물과 사적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문화유산을 잘 드러내도록 설계하였다. 도시 중심축을 이루는 대로와 광장에 조명을 설치하고, 가로설치물의 통일성을 위해서 설계경기대회를 조직하여 시가지 전체에 통일된 이미지를 부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하는 기구로 리용시의 공공조명국이 설치되어 야간경관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였다. 또한 1999년부터 도시 전체 차원에서 '인공적인 빛의 기교(2001)'나 '빛의 물결(2002)' 등 다양한 테마의 '빛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5)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야간경관프로그램은 크게 싱가포르강과 싱가포르만 지역의 야경조망, 스카이라인 지에서의 도시전체의 야경 조망, 멀라이언 타워에서의 야경조망, 건축물 야간조명 설치 및 조명 축제(Light Up) 등으로 나뉜다. 싱가포르강과 싱가포르만 지역은 리버보트를 타고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선적 형태의 야경지구다. 전통적인 교통수단이었던 리버보트에서는 건축물과 조명 디자인에 대한 안내방송이 제공되어 유기적인 스토리가 있는 야경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스탬포드 스위트호텔 빌딩의 69층과 70층을 이용하여 싱가포르 전체의 야경을 조망할 수 있으며, 센토사섬 내의 38m멀라이언 타워를 이용하면 싱가포르의 산업시설 야경도 조망 가능하다. 더불어 도시 내 상업지역이나 주요 지역에서 크리스마스 등의 기념일에 특수한 조명을 설치하는 라이트업(Light Up)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6) 시사점

야경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를 개발을 통해 유기적인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소 간 이동도 유리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한강을 이용한 야경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접근도를 높이며, 한강유람선을 개선하거나 유람선 내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강 및 청계천의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변 스크린을 이용한 영상쇼나 불꽃축제 등이 다양한 야경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다. 야간경관 조명 명소의 발굴과 홍보가 필요하다. 도심 및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발굴하고 이를 연결하여 프로그램화하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야경연출사업추진협의회(요코하마), 공공조명국(리용) 등에서 보듯, 야경관광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야경관광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2 축제 가득한 밤, 즐거운 서울의 밤(*Seoul Night Festivals*)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축제들은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관광객의 참여도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년 5월로 정례화된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2004년에 백야축제가 진행되어 많은 외국인과 서울시민들이 참여했다. 이와 같은 높은 참여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야간축제들을 개발,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서울 야간축제 프로그램으로는 크게 세가지 즉,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Hi Seoul Night Festival)',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벌(Cheonggyecheon Night Festival)', '시청 PiG 조명 페스티벌(City Hall PiG Light Festival)' 등을 들 수 있다.

1)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Hi Seoul Night Festival*)

하이서울페스티벌의 백야축제 프로그램에서 일부 시도 되었듯이,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은 서울의 지역별 특성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체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즉 서울광장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메인행사 외에도 서울시내 명소 및 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거점별 행사들이 개최되어야한다. 서울광장의 메인행사(*Hi Dynamic Seoul*)에서는 대규모 공연과 레이저쇼가 진행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거점별 문화행사들은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리축제들이 제공되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명동 및 도심지역의 문화특성을 반영한 'Seoul Heart Night', 동대문 지역의 쇼핑·패션·한류문화를 컨셉으로 한 'Fashionable Seoul Night', 인사동 및 종로지역의 전통문화를 컨셉으로 한 'Historical Seoul Night', 홍대·신촌 지역의 클럽문화를 활용한 'Fantastic Seoul Sound Night' 등을 제안할 수 있다([표 5-6]).

【표 5-6】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성		해당지역	해당 콘텐츠
메인 행사	Hi Dynamic Seoul	서울광장	· 대규모 공연 (퓨전타악퍼포먼스 및 유명연예인 공연) · 환상의 레이저쇼
거점별 행사	Seoul Heart Night	명동 및 도심지역	· 다양한 서울의 길거리음식 체험 · 다양한 서울의 살거리 체험 · 도심 지역의 주요건물 야경 감상
	Fashionable Seoul Night	동대문 지역	· 서울의 의류 살거리 체험 · 한국스타체험(실제크기의 스타사진전, 포토존 설치, 다크폴 찾기) · creative fashion leader 경연 · 코스튬 전시회
	Historical Seoul Night	인사동 및 종로 지역	· 전통민속놀이 체험 · 전통 먹거리 및 살거리 체험 · 역사적인 건물 및 지점 탐방 · 전통문화공연 · 야사(夜事) 관련 인형극 및 국공연
	Fantastic Seoul Sound Night	홍대 및 신촌지역	· B-boy battle/ Dj 거리 공연 · 클럽투어 · 그래피티 체험 · 클럽링 관련 베품시장 설치

2)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벌(Χηρονγγψεχηρον Νυχτ Φεστιβαλ)

청계천 복원 후 서울의 도심지역에는 접근이 용이한 수변공간이 마련된다. 청계천은 수변공간이라는 매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 기능 및 관련 스토리가 풍부한 자원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대사와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간이다. 따라서 도심부의 대표적인 야간문화축제로서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벌을 개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새로 건설될 22개의 청계천의 다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스토리'를 구성하여 축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 옛 광고와 수표교를 중심으로 한 '다리밟기' 행사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청계천 답교놀이 축제'나 보름달을 활용한 '청계천 만월축제', '전통등 축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청계천 답교놀이와 전통등 축제는 정월대보름이나 사월초파일 등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청계천 야간축제로 개발가능하다.

'청계천 만월축제'의 경우는, 보름달이 지닌 '채워짐'과 '가장 밝음'의 의미를 살려, 개인적 소망을 기원하고 나누는 행사로서 매달 보름달이 뜰 때 마다 개최해 일상적인 청계천 야간축제로

활용할 수 있다. 보름달에 대한 민속놀이나 고전 의식들을 체험함과 동시에 현대적인 영상이나 빛을 이용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들을 제공하는 등 월별로 다양한 야간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개의 도보다리를 이용하여 각각 ‘유희의 장’, ‘인연의 장’, ‘난장의 장’, ‘신명의 장’, ‘보따리의 장’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볼 수 있다.

‘유희의 장’은 보름달이 뜰 때 행해지던 다양한 고전놀이들을 재현하여 직접 참여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쥐불놀이나 돈치기 및 딱지치기 등의 간단하면서 모두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인연의 장’은 보름달에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나 현재의 만남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하는 연인들의 염원을 풀어내는 공간으로서, 다양한 기재들을 통하여 ‘인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다리 상하단에서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제공받은 부채, 뱃지 혹은 손목띠나 팔지 등이 서로 같은 사람을 커플로 맺어준다거나,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이나 수면스크린을 활용한 영상을 제공하여 자연스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베스트 커플 선정이나 사진전 등의 이벤트를 결합시킬 수 있다.

‘난장의 장’은 천정이 있는 다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공연을 신청받아 진행하며 매달 우승자들을 정월 대보름 혹은 적당한 시기의 보름날에 결승을 치르도록 하여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다. 또한 천정을 이용하여 관련 영상물이나 참가자들의 독창적인 영상물을 상영할 수도 있다.

‘신명의 장’은 가장 큰 규모의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로서, 난장의 장에서 우승한 참가자들이 정식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기여 참여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소망을 적어 달거나 직접 적어 넣을 풍선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성금화한다. 이렇게 제공된 풍선들을 날리면서 소망을 기원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봉사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보따리의 장’에서는 먹거리, 살거리 등을 베풀시장 형식으로 제공하여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되도록 한다.

3) 시청 ΠΗΓΕ 조명 페스티벌(*Χιτηρ Ηολλ Πηγε Λιγητ Φεστιβαλ*)

시청 PiG 쇼는 2004년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 축제기간동안 시청사를 배경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시청광장에 설치된 광원에서 시청사를 스크린화하여 역동적인 레이저 영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청이 지니는 무겁고 엄숙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된다. 특히 백야축제에서 보여진 서울의 역사와 현재를 이미지화한 역동적인 PiG 영상은 매우 매력적인 볼거리였다. 따라서 시청사를 배경으로 하는 PiG 영상쇼를 상설화하여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제화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야간문화축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시간에 PiG 영상쇼를 개최한다면, 이미 시청의 매력물이 된 서울광장 및 조명분수와 더불어 서울의 이

미지를 제고하는 중요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역사성과 현대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과 이미지들을 상징화하여 제공한다면, 서울을 처음 방문한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대한 소개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을 관광한 방문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추억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서울의 대표적인 이야기나 이미지들을 공모하여 P/G 영상소로 구성하고, 이를 위한 고정적인 시설을 서울광장에 설치하도록 해야한다.

4) 야간축제 관련 해외 사례

(1) 홍콩

홍콩의 대표적인 야간축제로서 '국제구정나이트퍼레이드', '심포니 오브 라이트(Symphony of Light)', '홍콩 웰컴 유' 등이 있다. 국제구정나이트퍼레이드는 홍콩의 명물인 야경을 활성화하고 전통적인 문화행사인 구정을 연계한 야간문화축제다. 화려하고 다양한 조명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 관련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심포니 오브 라이트'는 새롭게 기획된 관광이벤트로, 빅토리아 항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약 20분간 홍콩섬에 위치한 10개 빌딩의 옥상에서 개최되는 멀티미디어 쇼다. '홍콩 웰컴 유'는 야간레이저 쇼다. 또한 센트럴 지역에서 빛과 조명을 최대한 이용하여 건물벽면을 장식하고, 조명빌딩과 거대한 용, 다양한 꽃무늬, 발사되는 로켓의 역동적인 모습 등을 연출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2) 타이페이

타이페이에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개최되는 거대한 테마 등불축제가 있다. 반쳐오 기차역 광장을 중심으로 그해 십이지신의 형상을 본뜬 거대한 등불축제가 개최된다. 이 외에도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등불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핑시 천등제나 까오송 등불축제 등이 야간문화축제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3) 필리델피아

필리델피아시는 박물관 외벽에 시와 관련된 미국의 역사를 멀티미디어 쇼로 상영한다. 'Light of Liberty' 쇼는 개인에게 대여되는 헤드폰을 이용하여 안내방송을 들으면서 영상물을 관람하는 문화행사로서 매일 진행된다.

(6)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정기적인 야간문화행사로 '富의 분수 쇼'와 '센토사섬의 음악분수쇼' 및 '매지컬 센토사(magical sentosa)'를 개최하고 있으며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등 대규모 야간문화행사도 진

행하고 있다. '부의 분수 쇼'는 상업지구와 연계된 선택시티 물에 입지한 부의 분수에서 매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분수 쇼로 큰 규모의 조명분수를 관람할 수 있다. 센토사섬의 음악분수 역시 역동적인 분수와 화려한 조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오후 7시와 9시에 실시되는 매지컬 센토사 라는 레이저 쇼와 분수쇼가 접합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싱가포르 강과 싱가포르만 지역에서 화려하게 개최되며 그 규모도 웅장하여 낭만적인 야경과 더불어 중요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7) 시사점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문화축제가 필요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표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 드림페스티벌, 공연예술제 및 미디어시티서울 등의 축제들에서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P G 쇼나 조명 분수쇼, 레이저쇼 등 매일 관람가능한 도심 명소 spotl ight 축제를 제공, 주간관광과 연계된 정례 관광코스화한다.

3. 재미있는 야간문화 투어($\Phi\upsilon\nu\nu\psi\ N\iota\gamma\eta\tau\alpha\phi\ T\omicron\upsilon\rho$)

문화예술 분야의 야간투어 및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등 야간생활문화 투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심야 영화투어(Night Cinema Tour)', '심야 식도락 투어(Night Food Tasting Tour)', '심야 음악투어(Night Music & Drink Tour)' 등을 들 수 있다.

1) 심야영화투어($N\iota\gamma\eta\tau\ X\iota\nu\epsilon\mu\alpha\ T\omicron\upsilon\rho$)

서울에는 총 12개의 심야영화관이 있으며 6개의 자동차극장이 있다([표 5-7]). 이들은 접근이 편리하고 여러개의 상영관을 지닌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 여가문화공간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표 5-7] 서울의 심야영화 상영시설

분류	시설명
자동자극장	잠실자동차극장
	클럽 이오이4
	칼마21
	살곶이자동차극장
	씨네드림
	도봉자동차극장
심야영화관	MMC(동대문프레아타운 내 24시간 상영/ 10개 상영관)
	강변 CGV11(11개 상영관)
	CGV 명동
	CGV 목동
	CGV 상암
	CGV 구로
	CGV 공항
	MEGABOX (17개 상영관, 입체영화관 1개 포함)
	센트럴6 시네마(6개 상영관)
	스타식스 정동(6개 상영관)
	브로드웨이시네마
	랜드시네마8

이 외에 야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서울여성영화제,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페스티벌 공간이 있으며, 특정 기간동안 진행되는 천호동 공원 돗자리 영화제나 월드컵 공원 환경영화제, 서울역사박물관 영화상영 프로그램 등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러한 심야영화관, 자동차극장, 영화페스티벌 공간 등을 활용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제 수상작이나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영화 등 특정 테마영화들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영화관 및 영화제 조직위와 연계해 개발할 수 있으며, 이 때 각 영화에 대한 설명과 핵심 장면들을 스크랩화한 자료집을 제공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또한 '심야영화버스', '심야영화열차'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소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스크린과 프로젝션이 설치된 특수영화버스가 관광객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서울시내를 운행하면서 영화상영을 제공할 수도 있다. 혹은 KTX와 연계하여, 심야영화상영열차를 운행하여 열차 내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부산영화제 등 지방의 영화제 개최 기간동안 열차를 이용하여 지방을 오가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심야영화열차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한강이나 청계천 교량을 활용한 물영상(waterscreen)을 개발하여, 심야영화 관람의 명소로 개발함으로써 심야영화투어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시킬 수 있다.

2) 심야 식도락 투어(Night Food Touring Tour)

길거리음식, 한식, 세계음식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먹거리들은 대표적인 곳만도 약 600여 곳에

이른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음식이나 시민들에게 명소로 인식되는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심야 식도락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도심지역에는 3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해온 유명 음식점들이 있고, 최근엔 ‘하이서울 자랑스런 한국음식점’이라는 명소 지정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들을 소개하고 방문하는 경험을 제공하거나 음식재료나 요리법(recipe)자료 등을 콘텐츠로 하여 프로그램화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유형의 음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음식골목 문화투어 프로그램’의 개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무교동 낙지골목, 신당동 떡볶이거리, 장충동 족발거리, 종로 피맛골, 청진동 해장국 골목 등을 들 수 있다. 각 먹거리 골목의 형성 유래와 취급하는 음식의 특성 및 차별화된 요리방법 등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음식점 및 먹거리 골목에 대한 안내책자나 발행물 등에서 유명한 음식점들의 이름, 장소, 위치 및 찾아가는 방법과 재료, 가격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투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음식과 전통문화공연 등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의 집이나 삼청각 등의 음식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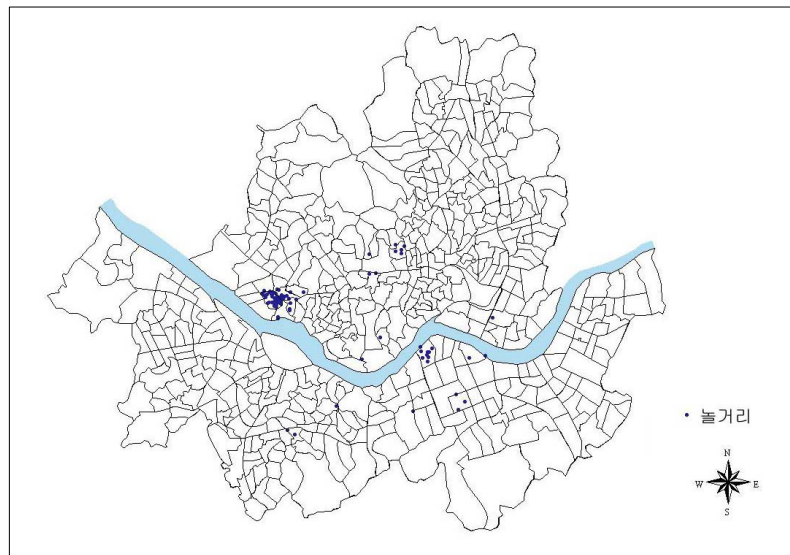
또다른 식도락 투어 프로그램으로 길거리음식 체험을 들 수 있다. 서울에는 떡볶이를 비롯한 다양한 길거리 음식이 존재하며, 이들 길거리 음식들도 ‘원조’, ‘제일 잘 팔리는 집’, ‘가장 많이 소개된 집’ 등의 이야기 꺼리들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한 이러한 길거리 음식들을 체험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길거리 음식들을 메뉴별로 혹은 지역별로 특성화하여 투어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종로지역의 떡볶이, 인사동지역의 호떡 등 전통먹거리, 동대문 포장마차 거리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세계음식들도 국가별, 혹은 재료별, 지역별로 프로그램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각 국가 및 민족의 전통적인 음식이 그대로 제공되는 음식점이나 한식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음식문화가 결합된 퓨전음식이 제공되는 곳도 있다.

위와 같이 야간 식도락 투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정부 및 관련 전문단체가 인정하고 관리하는 인증제 등이 도입되어야 하며, 체계적인 먹거리 안내책자(Tasting Tourism Guide Book)가 있어야 한다. 숙소와 관광지 음식점을 연계하는 다양한 투어코스도 개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위생관리와 지나친 호객 행위 및 서비스 미흡 등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3) 심야 음악 투어(*Nyct Mvσx αvδ Δρινκ Τουρισμ* / 深夜飲樂已行)

어느 여행지나 방문객들이 자유로이 술을 마시며 혹은 음악을 들으며 낮 동안의 여행피로를 풀거나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서울에도 이러한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놀거리 혹은 즐길거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의 놀거리가 부족하다고 여긴다. 특히 유럽 및 미주권의 관광객들은 pub이나 bar를 방문하는 야간문화관광에 매우 익숙하며, 개별 관광 목적지에서 방문한 pub이나 bar 자체를 중요한 관광경험으로 여기는 등 놀거리에 대한 수요가 크다.

현재 서울에는 음악을 즐기면서 간단하게 술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악카페, pub & bar, 클럽 등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일상적인 라이브공연이 이루어지거나, 수천장의 LP를 보유하고 있어 옛 향수를 느끼며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LP카페, 재즈, 록, 테크노 등 특정 장르의 음악을 라이브 공연으로 들을 수 있는 클럽 등 이른바 music & drink tourism에 해당하는 명소들이 총 90개 존재한다([그림 5-4]).



[그림 5-4] 서울의 **Music & Drink** 명소 분포도

이러한 음악명소들을 음악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투어 프로그램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포크음악을 즐길 수 있는 '포크음악 투어(Seoul Folk Music Spot Tour)', '클래식 카페 투어(Seoul Classic Music Spot Tour)', 전통찻집 등 한국의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전통음악 투어(Seoul Traditional Music Spot Tour)', 라틴음악 관련 클럽을 투어하는 '라틴음악 투어(Seoul Latin Music Spot Tour)', 테크노음악 관련 클럽을 투어하는 '일렉트로닉음악 투어(Seoul Electronic Music Spot Tour)', 재즈나 록 등 라이브공연을 직접 즐길 수 있는 '라이브음악 투어(Seoul Live Music Spot Tour)'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투어에서는 DJ나 아티스트, 밴드 등의 작품을 담은 음반 등을 비치해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 또한 수천장 이상의 LP를 보유하고 신청곡을 틀어주는 LP카페나 6·70년대 '다방'을 연상시키는 오래된 카페, 오랫동안의 낙서나 메모들이 있거나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영화포스터 및 엽서, 우표 등을 수집해놓은 테마카페들과 같은 '복고성'을 테마로 가지고 있는 음악공간들을 활용한 '복고풍 음악공간 투어(Korean Legendary Music Spot Tour)'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놀거리 음악 자원을 활용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개별 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취급하는 음악장르, 수용규모, 입장료 및 가격, 위치 및 교통수단, 외관, 내부장식 등의 물리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유래 및 역사, 마실거리 종류, 특정 프로그램, 음악 담당 아티스트에 대한 설명 등 무형의 콘텐츠 정보도 상세히 수집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Seoul Music & Drink Tourism이나 Seoul Music After Dark 등의 명칭으로 된 가이드북 형태로 발행되어야 하며, 그 자체가 소장 가치가 있도록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음악명소들의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주의 명소(This Week's Best Night Music Spot in Seoul)' 및 '이달의 명소(This Month's Best Night Music Spot in Seoul)'를 소개하는 주간 혹은 월간 형태의 발행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안내·홍보 인프라의 개발 이외에도 행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음악공간들은 춤을 추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으로는 불법시설인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있는 클럽이나 명소들을 합법화하고 인종제등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야간문화 투어 관련 해외 사례

(1)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City for Art'를 들 수 있다. 도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 시설이나 설치물을 탐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안내책자를 이용한 자율적인 보도투어가 가능하다. 먹거리 관련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음식문화축제와 유명 음식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선상 레스토랑에서 싱가포르 고유의 음식을 풀코스로 제공받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사테이 등 길거리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food street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위생적인 관리 등도 이루어진다.

즐길거리로는 클럽밀집지역인 모하메드 술탄로드지역의 클럽투어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Bus Pub'를 이용하여 클럽 간 이동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버스내에서 마실거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싱가포르 강 주변의 보트키나 클락키 지역에서 다양한 pub이나 bar를 이용하는 놀거리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정보지를 통하여 홍보되며 인증제도나 수상제도 등을 통하여 더욱 활성화된다.

(2) 시사점

유형별, 테마별 혹은 지역별로 상세한 야간문화 자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해당 자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및 안내물을 발행하고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들

1) 정보·홍보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1) 야간관광안내소(NTIC)의 운영 및 관광종합안내소의 연장운영

현재 서울에는 13개소의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다.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명소에 배치되어 있으나, 강남권에는 삼성도심공항터미널 관광안내소 및 잠실종합관광안내소를 제외하고는 안내소가 거의 없으며, 위치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안내판이 잘 안보여 이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관광안내소가 오후 6시에 운영 종료하며 시청 및 동대문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소만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따라서 야간에 관광안내를 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자료들에도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서나 자료들이 거의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야간문화관광 불참 이유나 문제점으로 정보 및 홍보부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안내를 위한 '야간관광안내소(Night Tour Information Center)'를 설치하거나 최소한 금·토일만이라도 관광종합안내소의 연장운영이 필요하다. NTIC는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담당하는 전용시설로서 야간문화관광종합안내책자 및 발행물, 야간문화관광투어프로그램 팸플릿, 야간문화관광상품 판매, 위치·접근경로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야간관광안내소전용 표식을 만들어 설치해야 한다.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중 한두 곳에 NTIC를 설치하고, 지역별로 관광종합안내소를 연장운영하여 유기적인 정보·홍보인프라를 구축한다.

(2)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 제작

우선, 테마별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이 제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Seoul Lightscape Tour' 혹은 'Seoul Light Tourism'이라는 제목의 야경 가이드북에는 서울의 야경조명 건축물이나 야경조망투어코스, 야경특구, 야경관람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Seoul Night Festival'이라는 제목의 야간축제 가이드북에는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이나 청계천 나이트페스티벌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 정보가 제공된다. 'Seoul Nightlife Tour', 'Funny Nightlife Tour' 혹은 'Seoul Night Culture & Art', 'Seoul Sound Tourism', 'Seoul Music & Drink Tourism', 'Seoul Tasting Tourism' 등의 제목의 야간문화 가이드북에는 야간영화투어, 야간전시투어, 야간음악투어, 야간음식투어 등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 및 일상문화공간 정보가 제공된다.

둘째로, 지역별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이 제작되어야 한다. ‘Seoul Special Lightscape District’라는 이름의 권역별 야경특구 가이드북에는 6개의 서울야경특구 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Seoul Night Hot Spot Area’라는 이름의 야간문화관광특구 가이드북에는 7개 권역별 전략지역의 정보가 제공된다.

셋째로, 종합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이 제작되어야 한다. ‘Seoul After Dark Series’, ‘Night Seoul’, ‘Feeling Seoul Night’, ‘서울야간문화관광 베스트 100선’ 등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종합가이드북에는 테마별, 지역별 자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소개된다([표 5-8] 참조). 예를 들어 해당 명소 및 업소의 이름, 위치정보, 접근경로, 전화번호 및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외관, 내부장식, 주변관광지 정보와 영업시간, 입장료, 가격, 특정 프로그램, 입장시의 복장, 관련 살거리, 인증 및 수상정보, 사진 정보 등이 함께 수록된다. 아울러 관광안내소나 안내전화, 응급전화, 숙박 및 교통 정보 등도 함께 수록된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갱신하여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야간문화관광 자료수집을 전담하는 시민기자나 프리랜서 기자제도 도입, 시민들이 자원을 스스로 추천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축, 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표 5-8] 야간문화관광 종합가이드북 구성(예)

구분	해당항목명	해당컨텐츠
레마별 시리즈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 (Seoul History Night)	· 서울의 야사(夜事)들 · 서울의 문화재 및 전통적인 건물의 야경 · 심야전통문화공연
	서울의 문화예술 (Seoul Night Culture and Art)	· 심야영화관람 · 문화시설물 야간개방과 전시 관람
	서울의 생활문화 (Seoul Nightlife)	· 심야식도락(먹거리) · 심야음악(飲樂)기행(Music&Beverage) · 심야술거리들(찜질방, 스파, 피부미용) · 심야쇼핑(살거리)
	스토리가 있는 서울의 야경투어 (Seoul Lightscape)	· 서울의 야경특구 · 서울의 야간조명 건축물 · 서울사랑시민상 야간경관조명부문수상작 · 한강조망투어코스 · 야경택시/ N라인버스, L라인버스
	축제 가득한밤, 즐거운 서울의 밤 (Seoul Night Festival)	· 하이서울 나이트페스티벌 ·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벌 · 시청 PiGi 쇼
지역별 시리즈	도심권 I (명동·종로)	· 서울의 도심 · 역사적인 도시 서울 · 다양한 즐길거리들 · 서울의 도심 야경을 즐기자
	도심권 II (동대문·대학로)	· 역사적인 도시 서울 ·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 다양한 즐길거리들 · 서울의 도심 야경을 즐기자(낙산공원 등)
	용산권(남산·용산·이태원)	· 서울 속의 세계 · 다양한 세계음식즐기기 · 다양한 즐길거리들 · 남산에서 서울의 전체 야경을! ·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
	서부권(신촌·홍대·월드컵공원)	· 젊음의 거리 I · 다양한 즐길거리들 ·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서울 · 크리에이티브 리더를 만나자 ·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을!
	강남권 I (압구정·청담·신사)	· 패션과 명품의 거리 · 다양한 즐길거리들 · 고품격 서울의 밤! · 한강 위에서 낭만적인 시간을!
	강남권 II (강남역·삼성·잠실)	· 젊음의 거리 II · 다양한 즐길거리들 · 서울의 테크노크라트, 지식산업의 중심지 · 복합적인 문화공간, 코엑스몰 · 88올림픽을 느낀다! · 다양한 즐길거리들
	동부권(구의·광진·천호)	· 아름다운 한강의 야경! · 다양한 즐길거리들 · old ferry Moorings

(3) 야간문화관광 종합안내 전화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안내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혹은 빠른 시간 내에 안내를 원하는 경우

야간문화관광 종합안내 전화를 이용해 즉각적인 안내를 받도록 해야한다. 시간적인 제한이나 이동의 제한 없이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단히 효과적인 정보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국어가 능통한 안내원들이 쉽게 관광안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과 정보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전화기 없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쉽게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 및 책자에 표시하도록 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할 것이다. 야간관광종합안내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교통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현재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4개 라인의 버스노선과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서울시투어버스 및 한강유람선이다. 그러나 지하철 연장운행과 버스 운행시간을 고려해 볼 때, 아직 심야관광을 위해서는 교통인프라가 부족하다. 또한 서울시투어버스의 야간노선 마저 운행 정지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들은 야간문화관광을 위한 이동과 접근에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심야관광시 택시가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정확한 접근의 어려움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야경투어택시, N버스 및 L버스, 서울시투어버스 야간코스 운행 등 야간교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야경투어택시'는 일정한 훈련을 제공받은 택시운전기사를 야경 혹은 야간관광 전문가가이드화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야경투어택시로 지정받은 차량 외관에 눈에 잘 띄는 표식을 주어 이용도를 높이며 차량 내부나 운전기사의 복장을 활용한 시각적인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차량 안에 안내방송을 제공하거나 관련 안내물 등을 비치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N버스 및 L버스'는 야간관광명소를 집중적으로 돌아보는 코스를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야경코스를 전담하는 L버스(Light Bus)와 7개의 야간관광특구 및 야간관광전략지역을 순환하는 N버스(Night Bus)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다. 야경별, 권역별로 여러개의 노선 개설이 가능하며, 전문가가이드의 안내를 제공받거나 안내물, 관광기념품 등을 비치하여 일정 수준의 이용요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 버스 역시 외관이나 내부에 야간관광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표식 등을 설치하여 교통수단 자체가 관광매력물이 되도록 한다.

또한 KTX 레저관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야경열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서울의 야경명소 및 야간관광지역을 연결하는 서울시투어버스의 야간노선 운행도 필요하다. 열차를 타고 서울야경에 대한 개괄적인 인지를 한 후, 서울 시내의 각 명소를 연결하는 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한다면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야간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행정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들과 홍보 및 교통인프라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지원 인프라 역시 구축되어야한다. 야간문화관광자원들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나 인증제, 평가제 및 수상제도 등을 도입하는 제도적인 행정지원과 야간문화관광원스톱정보센터나 야간문화관광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 요구된다.

외국의 경우 주요 야간관광명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고, 추천을 받아 야간관광명소로 인증하는 제도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의 주요 야간관광명소 및 업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추천을 받아 '베스트 야간관광명소' 등의 인증이나 일정한 수상금액 혹은 혜택을 부여하는 수상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야간문화관광의 질을 높여 관광만족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야간문화관광 원스톱 정보센터'는 서울홍보관내의 비즈니스 원스톱정보센터 기능을 하는 'BIZ 119'처럼, 'NT 119 (Night Tour 119센터)'의 이름으로 서울홍보관내에서 운영가능하다. NT 119에서는 야간 시간대에 관광정보 제공,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전화(1330), 유용한 전화(통신, 여권, 은행 등), 숙박, 교통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야간문화관광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담당자를 두어 야간문화관광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관련 해외 사례

(1) 홍콩의 교통인프라 프로그램

홍콩은 '피크트램'과 '갤럭시 나이트트램' 투어 등 교통수단을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크트램'은 홍콩에서 야경으로 가장 유명한 빅토리아 피크를 오르는 교통수단으로서 가파른 산을 깎아 만든 고급고층아파트와 주변 전망, 빅토리아항과 구룡섬 등을 보면서 홍콩의 독특한 야경을 볼 수 있는 관광교통인프라이다. '갤럭시 나이트트램'은 1904년부터 홍콩 섬의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전통적인 교통수단으로 설치된, 천정이 열린 트램을 이용하여 센트럴, 완차이, 메가 코즈웨이 베이 등을 돌아보는 관광상품이다.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며 홍콩관광진흥청 안내센터 등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영어 및 중국어 가이드가 동행하며 매일 저녁 구룡지역과 홍콩섬에서 편도 픽업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2) 파리의 교통인프라 프로그램

파리는 버스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건축물, 모뉴먼트, 분수, 공원, 다

리, 가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을 돌아보는 것으로서 계절에 따라 차별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이다.

(3) 리옹의 홍보인프라 프로그램

리옹시는 나이트 클럽, 디스코텍, pub&bar, 야경 전망 레스토랑, 공연 레스토랑 및 카지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Lyon Nocturne Nightlife*' 안내책자를 발행한다. 이 책자는 온라인 상에서 PDF파일로도 제공되며 가격정보와 운영시간, 주소 및 이름, 이용가능한 룸 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4) 싱가포르의 교통·홍보·행정인프라 프로그램

싱가포르는 센토사섬을 연결하는 케이블카에서 야경을 관람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싱가포르 도심을 운행하는 '문라이트 히포투어(noonlight hippo tour)', 수륙 양용 투어교통인 '덕투어(duck tour)' 등의 교통인프라 활용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센토사섬 내의 모노레일을 이용하면 무료로 센토사섬 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홍보인프라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I · Singapore*, *Juice*, *Pulp* 등의 주간지들에 다양한 야간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이 외의 대부분의 안내책자에 상세한 야간문화관광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다. 대표적인 안내책자로는 *Singapore Abuzz*, *Enjoy Singapore*라는 간행물과 *Your Essential Tour guide*가 있다. 또한 먹거리와 놀거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안내책자인 *Taste Singapore*가 발행되어 있으며, 안내지도인 *The Official Map of Singapore*에서 테마별, 유형별 야간문화관광자원들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고 있다. 또다른 홍보인프라로는 *My Tourism Passport*를 들 수 있다. 싱가포르 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돌아보고, 각 시설 및 자원에 해당하는 공란에 도장을 받는 형식의 여행수첩이다. 이를 활용하여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패스पोर्ट를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행정인프라 프로그램으로는 싱가포르 관광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Entertainment* 부서의 F&B 팀과 '스토리 개발부(Singapore Story Department)' 등의 전담부서를 들 수 있다. F&B 팀에서는 야간의 활발한 관광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안내물을 발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스토리개발부에서는 관광자원들의 스토리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이 외에 관광객들의 추천이나 일정 자격 이상의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핵심적인 야간문화관광자원을 선정, 수상하고 인증마크를 주는 '베스트 나이트 스팟 어워드(Best Night Spot Award)' 제도가 있다. 제도적인 행정지원 인프라이면서 동시에 이를 연결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5) 시사점

지하철의 연장운행이나 시티투어버스의 야간코스 운행 및 야간관광 전담 교통수단의 개설 등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서울의 야간문화를 관광할 수 있도록 서울시투어버스 등과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시의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패스 등을 개발하는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한강 유람선이나 서울타워 등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계 교통수단이나 접근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홍보인프라와 관련하여서는, 야간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관광안내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이는 종합적인 관광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주간지 형식의 발행물 등도 양질로 제작하여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야간문화관광 패스포트 등을 도입하여 개인의 기록물이 되도록 하여 관광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적절한 기준으로 야간관광명소 및 업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인증을 하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야간문화관광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원스탑 정보센터 등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5.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개발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은 야간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거나 야간문화가 발전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한다. 야간문화의 속성에 따른 전략지역 후보지역으로는 '홍대지역(클럽문화)', '동대문(소핑문화)', '남대문(재래시장문화)', '대학로(공연문화)', '북촌(전통한옥문화)', '이태원(유흥문화)' 등을 들 수 있다.

전략지역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홍대지역을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홍대지역은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원', '프로그램', '주체' 삼자가 모두 완비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우선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홍대지역은 라이브클럽 22개, 댄스클럽 28개 등 총 50개의 클럽이 밀집되어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클럽문화지역이다([표 5-9]). 홍대지역은 클럽 외에도 음악, 미술, 디자인, 영상, 출판 등 문화컨텐츠와 관련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들과 연계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용이하다.

둘째로,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보면, 홍대지역은 5개의 '야간문화축제'가 집적되어 있다. 즉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밤 14개 클럽이 참여하는 '클럽데이(club day)', 매달 둘째주 금요일 밤 7개 클럽이 참여하는 '사운드데이(sound day)', 매달 셋째주 금요일 밤 10개 클럽이 참여하는 '라이브데이(live day)',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밤 6개 클럽에 41명의 디제이가 참여하는 '디제이 페스트(DJ Fest)', 매년 5월 홍대지역 거리와 클럽 등지에서 개최되는 클럽문화종합축제인 '로드클럽페스티벌(roadclub festival)' 등 거의 매달 정기적인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표 5-9] 서울 홍대지역 클럽 현황

클럽 유형		클럽명
라이브클럽 (22개/44%)	록 (17개/77%)	프리버드, 재머스, 롤링스톤즈, 롤링스톤즈2, 슬러거, ΩΑΣΠ, 쌈지스페이스 바람, 사운드홀릭, 디지비디(ΔΓΒΔ), 각(Γεεκ), 스컹크헬, 빵, 켄, 공중캠프, 아우라, 블루버드, 핑키펅키
	재즈 (5개/23%)	에반스, 문글로우, 팜(παμ), 워터콕, 비밥
댄스클럽 (28개/56%)	테크노 (13개/46%)	M2, 명월관, 엠아이, 조커레드, 사브, 카고, 톨, 코드, 홀, 스텝퍼, 솔리드골드, 베이스룸, 동죽
	힙합 (5개/18%)	엔비, 디디, 윌(ωετ), 코스모, 할렘
	록/팜 (6개/21%)	후퍼, 스카, 흐지부지, 울드록, 홍키통크, 스튜디오80
	라틴 (4개/14%)	마콘도, 바이아, 보니따, 사보르라티노
전체		50개 클럽

마지막으로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홍대지역에는 ‘클럽문화협회’, ‘클럽연대’, ‘전국라이브 음악문화발전협회’, ‘라이브클럽연대’ 등 클럽문화 관련 주체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이들을 중재할 수 있는 매개단체 역할을 하는 ‘공간문화센터’, ‘홍대앞문화예술협동조합’ 등의 문화단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홍대지역의 문화적 조건을 토대로 “Enjoy Club Culture!”를 모토로 하는 서울 야간문화관광 전략 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클럽 콘텐츠와 정보인프라, 교통인프라, 관광기념품이 결합된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불법화된 클럽문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 관광안내소, 홍보물 제작, 랜드마크 조성 등의 홍보인프라 지원, 클럽투어버스 등의 교통인프라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제3절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종합 및 정책제언

1.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안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서울의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안을 요약하면 [표 5-10]에서 보듯 총 5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세부적으로는 30개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2005년 이후 1-2년 내에 준비과정을 거쳐 실시 가능한 '단기 프로그램'과 안정화되는데 3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단계를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기 프로그램은 도심권 야경특구 테마투어를 비롯한 총 15개 프로그램이며, 중장기 프로그램은 한강 교량 야경투어를 비롯한 15개 프로그램이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은 시민과 개별여행객을 타깃으로 한 '여가중심형 프로그램'과 단체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관광중심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가중심형 프로그램으로는 야간 역사문화 탐방로 등 총 19개 프로그램이며, 관광중심형 프로그램은 야경특구 테마투어를 비롯한 총 16개 프로그램이다.

전체적으로 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프로그램은 크게 4순위 즉, 단기 여가 중심형, 단기 관광중심형, 중장기 여가중심형, 중장기 관광중심형 프로그램 순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프로그램은 야경 분야에서는 '야간 역사문화 탐방로'와 '야경 조명 수상 건축물 탐방', 축제이벤트 분야에서는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과 '시청 P.G 조명페스티벌', 즐길거리 분야에서는 '심야 식도락 투어'와 '심야 음악 투어', 홍보 분야 전체 프로그램, 행정 분야의 '평가·인증·수상제 도입'과 '야간문화관광 전담부서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표 5-10]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방안 종합

구분	프로그램명			단계		타깃		우선 순위
				단기	중장기	여가 중심형	관광 중심형	
야간 경관	스토리가 있는 야경투어	야경 특구 레마투어	도심권 역사적 야경특구	◆			○	2
			서부권 역동적 야경특구		◆		○	4
			용산권 이국적 야경특구		◆		○	4
			압구정 고품격 야경특구		◆		○	4
			강남권 첨단적 야경특구		◆		○	4
			동부권 옛나루 야경특구		◆		○	4
		야경 건축물 투어	야간 역사문화 탐방로	◆		○	○	1
			야경조명 수상 건축물 탐방	◆		○		1
			한강교량 야경투어		◆	○		3
		한강조망투어	한강 야경조망 카페 투어		◆		○	4
한강 유람선 투어	◆				○	2		
야간 축제 이벤트	축제 가득한 즐거운 서울의 밤	하이서울 나이트 페스티벌		◆		○		1
		청계천 나이트 페스티벌	청계천 담교놀이		◆	○		3
			청계천 만월축제		◆	○		3
			청계천 전통등 축제		◆	○		3
		시청 PiGi 조명페스티벌		◆		○		1
즐길 거리	재미있는 야간문화 투어	심야 영화 투어			◆	○	○	3
		심야 식도락 투어		◆		○	○	1
		심야 음악 투어		◆		○	○	1
인프라	홍보	야간관광안내소 운영 관광종합안내소 연장운영		◆		○		1
		야간문화관광 가이드북		◆		○		1
		야간문화관광 종합안내전화		◆		○		1
	교통	야경투어택시		◆			○	2
		N버스, L버스 개설			◆		○	4
		서울시티투어버스 야간코스운행		◆			○	2
	행정	법적 제도 정비			◆	○		3
		평가제, 인증제, 수상제 도입		◆		○		1
		야간문화관광 원스탑센터 설치			◆	○		3
		야간문화관광 전담부서 설치		◆		○		1
전략 지역	야간문화관광 전략지역 개발 (홍대클럽문화 전략지역)				◆	○	○	3

2 정책제언

우선, 야간문화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야간관광정책의 비전과 컨셉 마련, 야경 기본계획, 야간축제 기본계획, 야간명소 기본계획, 야간 인프라 기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별 세부전략 및 실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단계별, 운영주체별, 타깃별 세부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체계적인 야간문화관광 마케팅 파트너십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시간대만 야간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사실상 내용적으로 매우 다양한 분야가 결부되어 있는 통합프로젝트다. 따라서 서울시 내에서도 관련부서간 행정지원 통합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발은 문화국(관광과), 경관정비는 주택국(도시정비반), 홍보는 마케팅담당관 등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여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정부뿐만 아니라, 여행업계, 관광협회, 문화단체, 시민 및 지역단체 등 거의 모든 민관분야의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실현가능하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 전반을 통합적으로 기획, 추진, 조정할 수 있는 파트너십 조직(가칭 "서울 야간문화관광 협의회")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야간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엔 커다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야간문화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얻게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도시경제 활성화 및 도심부 재생효과를 측정하여 적극적인 야간문화관광정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신겸, 2004,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경쟁력 강화방안
- 김영종, 2000, 한옥마을 보전 및 개발에 관한 연구 - 서울 북촌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매일경제신문사, 2001, 낮과 평등해진 밤을 공략하라', Economic Reviews
- 박대한, 2001, 서울시티투어 이용객의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서울시, 2002, 10 best places in Seoul - Hongik Univ. street
- 서울시, 2002, 10 best places in Seoul - Jamsil
- 서울시, 2002, 10 best places in Seoul - Sinchon
- 서울시, 2002, Seoul's best 100 english version
- 서울시, 2004, 신나고 실속있는 서울여행 길라잡이
- 서울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청계천에 얹힌 전통민속놀이 재현을 위한 학술용역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문화관광상품 마케팅 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문화네트워크 구성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문화분포 현황 및 공간적 특성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티투어버스 운영체제 개선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주5일제 근무제가 도시정책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한류 마케팅과 동대문 상권 활성화 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서울시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서울특별시, 2002, 서울시 지역별 야간경관 기본 계획 연구
- 이우일 외 18명 공저, 2004, 아침형 인간 강요하지 마라, 청림출판
- 임소현, 2002, 대구시티투어 관광만족도 연구,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임정란, 2001, 한국사회에서의 밤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조희재, 2001. 8, 서울의 율빠미 문화 활짝핀 서울의 밤', 시티라이프
- 충북개발연구원, 2002, 충북지역 야간관광명소개발전략 - 야간경관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관광연구원, 2000, 도시관광진흥방안연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04, 관광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주5일 근무제 시행 및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대 토론회

한국도시설계학회, 2004, 도쿄 롯뽀기 재개발의 세가지 이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한국의 문화관광지도 작성연구

한상진 역, 2001, 24시간 사회, 민음사

Bishop and Robinson, 1998, Night market, Routledge

David Grouch, 1999, Leisure/ tourismgeographies, Routledge

Hall, C. M. and Page S.J., 1999, The geography of tourism and recreation,
Taylor and Francis

John Connell and Chris Gibson, 2003, Sound tracks, Routledge

Lonely planet, 1999, Seoul

Paul Chatterton and Robert Hildes, 2003, Urban nightscapes, Routledge

Poon, A., 1994, "The new tourismrevolution", TourismManagement

Urry, J., 1995, Consuming Places, Routledge

한국관광공사, 200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http://inews.seoul.go.kr>

<http://myfriday2.joins.com>

<http://www.0924culture.net>

<http://www.bulnori.com>

<http://www.drunfestival.com>

<http://www.seoulcitytourbus.com>